朝鮮日報
夕刊
十三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善

米國共和黨 次期 大統領候補決定

大統領엔 랜든、副大統領엔 녹스

波瀾一貫의 黨大會

副大統領候補녹스氏

大統領候補랜든氏

【클리블랜드十二日發同盟】共和黨全國大會는 十一日 캔사스州知事 랜든氏를 大統領候補에 指名한後 十二日 全會一致로 쉬카고 데일리·뉴스紙社長 녹스氏를 副大統領候補로 指名하엿다 랜든知事는 最初 미쉬간州選出上院議員 반덴베르그氏를 副大統領候補로 希望하고 同氏說得에 努力하엿스나 반덴베르그氏는 書翰으로써 右要請을 拒絶하엿기때문에 녹스氏로 決定하게되엇다 그리고 政綱問題에 關하야 意見의 對立이잇서 形勢는 極度로 紛亂에 陷하야 一時 全혀 議事의 豫想을 不許하엿스나 各代表도 最後에 全혀 疲勞의 極에 達한結果 겨우 議가 一致되어 午後一時十四分 滿場四時間에 大會는 閉幕을 告하엿다

擧黨一致안코는 民主黨擊破難期

各州豫選戰에 民主黨依然優勢

大會無事終了의 主因

【클리블랜드十二日發同盟】全國共和黨大會開會前 極度의 紛糾를 보엿슴에도 不拘하고 擧黨一致 훌륭한 統制를보며 캔사스州知事랜든氏를 大統領候補에 데일리뉴스社長 녹스氏를 副大統領에 各各指名하고 無事히閉會하게되엇다 候補指名이 如斯히 圓滑하게되엇은 全혀 共和黨史上 空前의 일이라고 解釋되는데 政界消息通은 共和黨이 戰線을統一하야 捲土重來의 決意를한것을 看取하고 左의事情을 披瀝한다

一、各州豫選의 形勢에 徵하드라도 民主黨이 依然 優勢를 示하야 共和黨은 擧黨一致捲土重來를 圖하지안는限 十一月三日의 決戰에勝利를 거둘수는없다는 心理가 大會를支配한것

一、랜든知事의 選擧委員하밀톤氏의 畫策이 得宜하야 對立各派의 妥協工作이 順調로 進行한것 特히 녹스氏는 十一日 랜든知事를 推薦함에 當하야 擧黨一致의 必要를 强調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刻下 非常時局에 際하야 個人的感情을 云爲하는것은 容認할수없다 共和黨은 史上空前의 難局에 當面하엿다 今日 政敵을 擊破하기爲하야 戰線을 統一하는것이 刻下의 急務이다

하밀톤氏와 가튼이는 多年 캔사스州에서 랜든知事와는 政敵이엇스나 今回 從來의 關係를 버리고 랜든氏의 選擧委員長이 되것이 同氏의 將來共和黨全國委員長의 椅子를 約束하얏다고 한다

極東水面問題 英蘇妥協成立

十二日會談의 結果

【倫敦十三日發同盟】英蘇兩國代表는 十二日午後二時間에 亘하야 會談을 遂하고 極東水面打開에關한 蘇聯政府의 要求에關하야·協議를 거듭하엿는데 結局 互讓의 精神에依하야 兩國代表間에 妥協案이 成立되엇다고 解釋되다 妥協方式의 內容이라고 傳하는바는 如左하다

一、蘇聯政府는 當初 極東水面에 關하야 新倫敦條約의 質的制限을 一切 免除할것을要求하엿는데 右要求를 撤回하고 原則的으로는 極東艦隊에關해서도 質的制限을 受諾할

一、一方 英政府는 蘇聯政府의 主張을 承認하고 建艦通報條項을 歐洲艦隊에만 適用하고 極東艦隊에는 適用치안는다 日本政府가 新倫敦條約의 條項을 無視할境遇에는 蘇聯政府는 特히 通報함을 要하지안코 絶對秘密裡에 建艦함을得할

右妥協案으로 蘇聯政府는 海軍과 維持할 太平洋上에서 日本海軍과 拮抗할수잇슴이로 英國政府는 日本政府의 大陸政策에 鑑하야 蘇聯政府의 極東防備自主性을 容認한것이라고 重視되고잇다

皇太后陛下 十八日 多摩御陵御參拜

【東京電話同盟】皇太后陛下께옵서는 來十八日午前十時半 大宮御所御出門 오래간만에 多摩御陵에 御參拜하옵시겟다는 旨를 十二日 御紛附 하시엇다

赤旗든罷業團二千名이

『國際歌』高唱하며 議事堂에殺到!

我等의要求를立法化하라고

佛勞働爭議再惡化

【巴里十二日發同盟】佛國空前의 大罷業은 漸次 鎭靜에 歸하고 잇던바 十一日에는 巴里各處에 아직 復業치안흔 罷業團이 街上데모를 開始하고 또十二日에는 罷業中의 二千名은 손에赤旗를 휘날리고 인터나쇼날歌를 高唱하면서 下院議事堂前에 殺到하야『我等의 要請을 速히 立法化하라』고 絶叫하야 氣勢를올려 復業한 一部勞働者도 이에 呼應하야 再次 罷業狀態에 들어가는등 再次 不穩한 氣勢를 生하고잇다 이外에 地方에서도 또 罷業이 勃發 한곳도잇다 事態는 아직 樂觀을 不許하는바 잇서 政府도 事態를憂慮하고 武裝警官을 增員하야 警戒를 嚴重히 하고잇다

(寫眞은 佛首相블룸氏)

질랑氏再組閣着手

【브랏셀十二日發同盟】방·질랑前首相은 一日組閣을 辭退하엿스나 레오폴드三世陛下의 懇篤한 要請에 鑑하야 十二日夜에 至하야 드듸어 翻意하고 後繼內閣組織에 進出하기로 決定하엿다 同氏는 아마 社會黨카톨릭黨의 聯立內閣을 組織할것으로解釋되는데 現下罷業運動의 進展에 鑑하야 組閣後 急速廣汎한 社會政策的法案을 制定할것

四十時間勞働制 佛國下院遂通過

人民戰線內閣의 功績

【巴里十二日發同盟】佛國下院은 十二日午前九時에 開會하고 四十時間勞働週制法案의 審議에 들어갓는데 白熱的討議八時間後 三百八十五票對 百七十五票로 原案을 可決하엿다 即時上院에 廻付하엿다 席上에서 平價切下論의 急先鋒으로·레노ー氏는 人民戰線內閣의 罷業對策을 詰難하고『特히 所謂社會政策法案制定의 結果 無制限한 인풀레이슌을 誘致하야 法貨는 重大危機에 直面하고 外國貿易은 破壞되게될것이다』고 述하엿다 以上의 警告에 對하야 블룸首相은 法貨擁護의 決意를 表明하고 如左히 言明하엿다

社會政策法案이 成立되면 佛國國民의 最多數를 占한 大衆의 購買力은 增大되고 經濟的活動은 全國을 通하야 回復될것이다 佛國政府는 絶對로 平價切下를 企圖치안흘方針이다

다음 共産黨議員團은 投機取締法案을 提出하야 同案審議를開始하엿는데 下院은 午後五時一且 閉會하엿다

佛蘭西의 大罷業

團體契約調印으로 佛大罷業圓滿解決

【巴里十二日發同盟】佛國大罷業의 端緖가된 金屬工罷業은 十二日午後十時 勞働省에서 勞資雙方代表가 會見하야 團體契約調印으로써圓滿解決하엿다

西班牙에 飛火!

五萬勞働者賃金五割引上要求

戒嚴令을 一個月延長

【마드릿드十一日發同盟】佛國大罷業의 影響을바든 西班牙全國의 罷業은 事態가惡化하야 首都마드릿드市만으로도 約五萬의 勞働者가 賃銀五割引上을 要求하고 各地에서 示威運動을試하야 不穩한形勢를 示하고잇다 市民은 戰戰兢兢 罷業團이 投한 爆彈의 音響을共産黨 革命의信號라고 性急히 解釋하고고게 唐皇하야 夜半에戶外로 뛰어나가는等의 騷動이잇다 西班牙政府는 事態를憂慮하야 이에對處하기爲하야 戒嚴令을 一個月延長하는一方 主要大都市에 警官隊를 增員하야 非常警戒를 命令하엿다

中央軍은 衡陽線을確保

【上海十三日發同盟】中央軍은 南廣軍의 北上을 衡陽의 線에 阻止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야 이미 空軍에 對하야『萬若 兩廣軍이 衡陽을 通過한 境遇에는 即時 이를 爆擊하라』는 命令을 發하얏다 中央軍은 이미 長沙를 中心으로 宜昌(湖南)武昌(湖北) 南昌(江西) 杭州(浙江) 漳州(福建)에 戰時配備를 完了하고 이와 呼應하야 陸上部隊 第四十二、第四十七及 第九十七의 三個師가 十三日 午後 衡陽에 到着하야 市外 十五哩의 地點에 堅固한 塹壕를 構築하고 布陣을 終하야 兩廣軍의 北上을 完全히 阻止하려고 待機中이다

西南進退兩難?

民衆은南京政府擁護

抗日宣傳도別無奏効

【南京十二日發同盟】西南軍北上問策을 講究하면서 二中全會開會의 輪廓을 지으려고 努力中인데 西南軍進擊은 最初의 大言壯語에 알맛지안케 遲遲不捗하야 바랏던 反蔣軍閥의 行動도 依然히 實現되지안코 民衆도 豫期한바가튼 抗日의 피리에 춤추지아니하고 오히려 南京擁護의 通電을 發하고잇스며 또 西南의 抗日宣傳에 對하야 日本의 强硬態度도 明示한바잇서 西南軍은 方今 進退兩難에 陷하엿다고 觀測되게되엇다 따라서 大勢는 政治的解決의 可能性이 濃厚하게되고 武力衝突의 危機는 漸次 緩和될 氣運이 되어잇다

獨逸反對解消

【倫敦十二日發同盟】蘇聯代表는 海軍會議에 關聯하야 三萬五千噸級主力艦三隻建造의 希望을 表明하얏다고 報道되다 右報道를 接受하자 獨逸政府는 某種의 艦種에 關하야 現行三割五分의 比率을 修正하도록 非公式으로 英國政府에 要求하얏다고 報道되다 倫敦外交界의 消息通의 報에 依하면 獨逸代表는 英國當局의 態度로 比率變更要求를 撤回하얏다고 傳하야 英蘇海軍會議에 獨逸이 反對할念慮는 一旦 解消되엿다고 하나 獨逸政府는 適當한 時期에 別個의 形式으로 同樣의 要求를 提出할는지도 모른다고한다

英蘇海軍會談 二大難點

【倫敦十二日發同盟】英蘇海軍交涉은 十二日午後五時부터 英國外務省에서 開會하고 左의 二點에 關하야 兩國間의 意見이 아직 一致되지안허 前途는 반드시 樂觀을 不許한다고 解釋된다

一、蘇聯政府는 質的制限에 關하야 獨逸이 同樣의 制限을 受諾할 境遇에만 이를 適用하겟다는 旨의 保留規定挿入을 主張하고잇는데 英國側은 아직 完全한 諒解를 與하지안핫다

二、蘇聯은 極東艦隊의 建艦計劃情報交換及 質的制限을 受諾하엿는데 日本이 同樣의 質的制限을 受諾하는限 이것을 遵守할 義務를 負한다고 主張하고잇는데 對하야 英國은 依然 難色을 示하고잇다

無任所相設置 陸軍强硬主張

現在各大臣은各省事務에偏重코 政策研究機關은組織權限이微弱

【東京電話同盟】無任所相設置에 關하야 政府에서는 賛同이 좀 적으모양인데 陸軍側에서는 庶政一新의 急速完全한 實現을期함에는 꼭 이것을 設置하는것이 必要하다고 庶政一新에對한 陸軍案의 最重要事項의一로 近近 首相又는 閣議에 進言할터이다 그런데 그根本理由에 關해서는

一、現在 各大臣은 各省事務長官이기때문에 所管省 事務에쫏기고 또 쫏기기쉬기때문에 積極政策을實現시키기는 困難하고 結局은 所管省本位에 豫算分捕主義에陷할 境遇가 不少하다

一、또 現在政策研究機關은 그組織權限이 모다 薄弱하기때문에 國家的大政策을 樹立하기는 困難할뿐아니라 假令樹立할수잇섯다하더라도 이實行에 迫力이업서 行政大臣 國務大臣 二制度에 改正하는것이 理想이나 過渡的 方策으로 現行內閣官制에 依한無任所相을 設置하야 各省分掌事務에 拘泥되지말고 自由의立場에서 大局에서 革新的相互國策을 樹立케하여야할것이라고한다 그런데 右에 基한具體的意見으로內閣調査局과 資源局等의 國策統制機關을 改革擴充하야 無任所大臣에게 此等을統轄케하야 前記各省에對하는 大國策을 樹立케하고 또諸國策決定에 當케할 에 잇다는것이다

須磨總領事 十五日神戶發歸任

【東京電話同盟】須磨南京總領事는 十五日 神戶出帆의 上海丸으로 歸任의 途에 오를터인데 同總領事는 川越大使의 赴任前에 國民政府要人과 會見하고 豫備的折衝을 行할 豫定이다

對濠通商擁護法 十六日에發動

關稅調查會正式決定

【東京電話同盟】濠洲今回의 關稅引上에 對하야 日本通商擁護法의 發動은 十二日 關稅調査會에서 드듸어 決定하얏는데 發動時期는 外務當局에 一任하기로되엇다 그런데 外務當局은再次濠洲側에 反省할 餘地를 與할方針이나 現狀에 變化가업는限 來十六日 開할 定例閣議에 通商擁護法發動에 關한 勅令案을 附議하야 上奏御裁可를 經한後 即日 施行하게될것이다

廿六日聯盟理事會

議長招請狀을發送

【쥬네브十三日發同盟】聯盟理事會議長이든英外相은 來六月二十六日午後五時 聯盟理事會를 開催하기로 決定하고 二日 各理事國에 對하야 招請狀을 發하얏다 同時에 聯盟事務局은 콤뮤니케로서 如左히發表하엿다 第九十二回 理事會는 六月二十五日午後五時부터 餘의 議事를 續行할터이다

一、伊에兩國間의 紛爭

二、로카르노條約問題

三、이락國으로부터 國外에移住한 앗시리아人의 居住問題

北中殺人事件

日英兩大使館發表

日本大使館發表 【北平十二日發同盟】英兵의 滿洲國軍政部職員 佐佐木氏 殺害事件에 關하야 十一日 日本側의 證人에依한 英兵의 人物實檢을 行하엿는데 十二日 日本大使館에 如左히 發表되엇다

昨十一日 前回協提에 基하야 日本側證人九名은 日本側官憲立會下에 英國大使館에 赴하엿는데 彼便의 形便으로 査問會는 關하지안코 英國普通法廷의 手續에依하야 英國兵士의 人物實檢을 行하엿다 日本側에서는 如斯한 目的을爲함이라면 特別히 適當한 證人이 잇는것은 이미 英國側에 通告해둔바로 此等證人도 參加시키는것이 必要하다는것을 指摘하야 結局四名의 證人을 參加하엿다 證人이 一人式 英兵의 人物實檢을 行하얏는데 佐佐木殺害事件에 直接 關係잇는 證人等이 事件當時의 狀況으로 보더라도 眞犯人의 面貌는 明白히 記憶할수도업고 따라서 이人物實檢으로 犯人을 指摘할수업는것은 當然하다 他의 證人中의 數名은 確實히 朝鮮人側에서 暴行한 兵士에 對해서는 二名의 英國兵士를 指摘하엿다 따라서 日本大使館은 犯人에 關하야 今後에도 協力 搜査를 繼續하도록 英國政府에 要請해두엇다

英國大使館發表 【北平十二日發同盟】佐佐木事件에 關하야 日本大使館의 發表와 倂行하야 英國大使館에서는 十二日左의 스테ー트멘트가發表되엇다 佐佐木事件에 關하야 英國大使館內에서 暴行한 駐屯英國兵의 人物實檢을 行하엿다 그結果 日本側出席證人은 二十六日夜 朝鮮人酒店에서 暴行한者라고 二名의 英國兵을指摘하엿다 그러나 佐佐木殺害로 直接證明된 兵士는 一名도업섯다 調査는아직進行中이다

五社會政策法案 上院委員會에附託

【巴里十二日發同盟】佛國上院은 十二日 午後五時十五分開會하고 社會政策에 關한 五法案을 委員會에 附託하엿다 法案說明에 當하야 블룸首相은 秩序維持를 爲하야 斷乎한 手段을取할用意가 잇고 罷業을 使嗾하는 不純分子에 對하기는 嚴重取締하겟다는 旨를 言明하엿다 上院은 十六日 再會하야 委員會의 報告에 基하야 急速 審議를 開始할터이다

拓務省年次移民

一擧三倍增加

移民會議에서決定

【新京十二日發同盟】關東軍에서 開催된 移民會議는 大量移民計畫의 暫定的實施策으로 經費三百萬圓으로써 拓務省의 年次移民을 一擧 三倍로하야 三千戶의 移住計畫을 決定하얏다 本案은 近近 中央에 回附되어 明年度豫算에 編入한後 暫定移民을 實現할것으로 解釋된다 그리고 拓務省과 滿洲國間에 折衝中인 日本林業移民計劃은來八日까지에 實現하기로되어 秋田靑森의二縣으로부터 三百二十名을 入植시키기로 決定하엿다

人事·集會

▲崔昌弘氏(長湍郡守)新任人事次來社
▲關口聰氏(京城專賣支局長)新任人事次來社
▲尹斗亨氏(醫師)慶雲町六〇番地에서開業人事次來社
▲八尾爲治郎氏(大阪朝日新聞社京城通信局長)辭任人事次來社
▲鈴木正文氏(大阪朝日新聞社京城通信局長)新任人事次來社
▲宮田晴明氏(東京우데나本舖)小川正雄氏(同上)入京人事次來社

八面鋒

◇멀리 獨逸에서 汪兆銘이 故國에向하야 一致團結의必要를 電報로 懇托。

◇必要를부르짓서 싸우는가、一致의實을擧하라거든 汪自身이歸國하야 몸소實踐이若何。

◇米國에도 『馬政一新』이라는 文字를 쓰는이가 잇다고。

◇『文化는 東方으로부터』라드니 三六年의流行은 東京으로부터 인가。

◇三十三歲의 伊太利新外相、强力外交方針으로 邁進할意思를 宣明。

◇뚝가튼나이에 예수는 남의罪를대신하야 十字架에 못박히지아니햇든가。

一二三(히후미)
退病膚皮
外用常備藥의
가렵고아프고더러운옴·낭습진·무좀、부름에는아무래도「一二三」(히후미)가第一입니다。
발라두면消毒殺菌收斂作用을發揮하야輕快하여집니다
主效 옴·낭습진、버짐·습진、무좀、레독、白癬、汗疹、쇠버짐、부스럼、뾰루지、頭瘡、切傷、火傷
全國有名藥店에잇습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實効散 一二三本舖 東京市神田區明神下 師岡天然堂 振替東京一三七二番
NO.131

商標 千壽 고추가루部
金千壽商店製粉部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습니다

外科 肛門病科
醫學博士 朴昌薰
入院室全部완備 入院設備
京城府樂園洞一三五
電光一四五二
全治手術每日施行

春夏服 레ンコート セビロ類 各五千着限
犧牲的大販賣
顧客本位로奉仕하는大問屋은今澤
現金問屋 今澤商店
商人에限市勢表進呈
東京市神田區豐島町
電話浪花四九二一番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入院室完備)
京城鍾路三丁目十六
電話光化門六八五番

リヤン
재봉실
꼰수실
푼수실
삭실제조
首陽店
京城仁寺町七六
電話光化門一一六五
振替京城一七四八三

好職業
男女選近不問自宅執筆業○動人募集 卓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東西近郊에 强盜頻發

纛島는逮捕、弘濟、延禧兩町은未逮捕

府外에잇서 봄수업는투우한강상의하나로 올에는이틀절에 전어들면서 강도사건이 꼬리를물고일어나서 지난금요일 홍지정(弘智町)구십번지 원윤순(元允淳)의자전에 드러갓든 두사람의강도사건을 필두로 그후한주일이지난 이달일일밤 연희정(延禧町)사백팔십이번지 장석규(張錫奎)라는농아사람의채소바테들어갓는 강도사건이생겨서 부민의가슴을 놀래이고잇는지 꼭한주일이되는 십삼일새벽에 또다시외서 뚝섬리(西纛島里)사백칠십칠번지 남봉파리 림옥석(林玉錫)(四二)의 집에 식칼을 가진 강도가 드러가서 피해자와 칼싸흠을 하여두편이 모다 중상을 바든 피비린내나는 활극을 연출해서 다시금 일반의가슴을 서늘케 하고잇다 그런데 전긔 홍지정강도범과 연희정 강도는 아직도 체포되지못하엿고 서뚝섬강도만은 즉일 그곳 저수지부근 보리밧속에서 체포되엿다

十三日새벽三時半頃 西纛島에食刀强盜

칼빼깃犯人負傷逃走

돈훔치다가發覺되자칼부림

십삼일 새벽에 시외뚝섬에서돈을훔치러 드러갓든 강도가들켜서 사람을 찔르고 도망하엿다 이날오전 세시삼십분쯤에 시외서뚝섬(西纛島)사백칠십칠번지림옥석(林玉錫)(四二)이 자고잇는방에 도적한명이 드러가서 림옥석의 호주머니에 너어둔 지갑을 끄집어내는것을 림옥석이가 잠을깨여 발견하고 이러나서그를 붓잡으려한즉 도적은 가젓든식도(食刀)로서 림옥석의 머리를 찔르고 한강(漢江)가로도주해버렷다

범인은 나이 사십세가량되여 보이며 킨는옥조운가량되고 웃수염이잇고 모자는 쓰지안햇스며 휘저고리를 입엇고 말소리는 목매인소리엿다한다

그리고 범인은 가젓든식도를 도로 피해자 림옥석에게 빼앗겨서 복부(腹部)와 머리에 두서너군대나 찔리고물대기를 물려서 상당히 상처가잇슬것이라 하며 범인의 입은 의복에도피가 무더잇슬것이라한다

피해장소에서 약오백미돌되는 지점까지 범인이 다라나면서흘린 피흔적이 잇다한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칼을도로 빼앗겨 찔리는바람에 제밧갈려 달라고애걸하면서도주하엿다한다

동대문경찰서에서는이급보를밧고즉시서원을비상소집하야『뻐스』를 타고현장부근일대에 출동하야범인을수사하는중이다

범인은 도주할때에 빼앗긴식도이외에 수건한개와 흰고무신한켜레를흘려두고 도망하엿다

被害者 林玉錫談 나는독신로동자로 집도업습니다 이날밤에 조동완(趙東完)씨의 신촌한 빈집사랑에 자고잇섯는데새벽에 그도적놈이 방에드러와서벽에 거러둔 조끼안에 드러잇는 돈지갑(칠원이십이전)을 훔처내려할지음에 잠이 깨엿습니다 그래서 도적이야 소리를 질럿더니 밧그로 뛰여나가는것을 마당에 까지 따라나가서그 도적놈을 붓잡아 한바탕너머트렷더니 가젓든 식칼로서 나의 머리를 칠려다 나는아픈것을참고 그놈이가진칼을 도로빼아서 그의배와 머리를 닥치는대로 질르고 입으로물때기를 무럿습니다 그놈은 원악내가 힘세게덤비니까 겁이낫든지 『제발살려달라』고애걸을하면서 골목라서도주해버렷습니다

보리밧속으로 搜査隊總集中

뚝섬등피에는 보리밧이 만하서 요지옴 보리가 무성한 때이므로 범인은 보리밧에 드러가서 숨어잇지 안흘가하야 경관들은 그방면으로 총출하야 수사하는 중이다

傷處에서出血로 麥田에昏倒瀕死

犯行後九時間만에逮捕 五十餘名警官出動

십삼일 새벽 세시삼십분경에 시외 서뚝섬(西纛島)사백칠십칠번지 림옥석(林玉錫)(四○)을 습격한 강도사건이 발생하자 소관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는 즉시 비상소집을 하고 경부 사법주임이 인솔한 오십여명경관대는 본정서(本町署)의 후원까지 어더가지고 전기 발생장소를 중심으로 물샐틈업는 수색을 느리고 필사적활동을한 결과 사건이 발생한지 아홉시간을 지난 동일 오후한시반에 사건현장에서 약팔정가량 떠러저잇는 수도수원지(水道水源池) 서쪽 구급수관(舊給水管)엽 보리밧가운데서 드듸여 체포되엿는데 범인은 전긔 피해자와 격투하다가 바든 상처에서 출혈이 만허 혼수상태로밧가운데에 쓰러저잇스며 그가취조경관에게힘업는목소리로 자백한바에의하면 시내숭인정(崇仁町)에서 잡화행상을하는 리수영(李壽榮)(二○)이라는주을군이로 그는범행즉후 길우에피를 줄줄흘리면서 도선장(渡船場)까지갓스나 원체이른아침이라 배가업슴으로 다시발길을돌려피할곳을차젓스나 점점날은밝거가고 상처에서나오는피는 쯧나지안허 어찌할수업시되자 전긔장소까지와서는 기진맥진하야 그만쓰러저버린것이라고하며 지금은다만의식만 회복되기를 기다릴뿐으로 시내연희정(延禧町) 강도 진범인도 아즉 미체포로 잇는때라 그의취조결과는 자못 주목되는바만타고한다

犯人은依然迷宮

延禧町强盜의續報

루부터 연희정(延禧町)강도사건의 용의자로 십이일 아현정(阿峴町)에서 잡어온곽학현(郭鶴鉉)이도이사건에는별로 관계업는 인물이라는것은 작지에 보도한바어니와 이로써이사건의 열쇠는전혀미궁으로 드러가고 말엇는데 소관서대문서에서는 범인체포제이단공작에 드러가 수사대의지구전이 전개되고잇다한다

鍍金詐欺

시내종로서 사법계에서는 십이일에 시내장사정(長沙町)... 태창공업소(泰昌工業所)주인 김순범(金順範)(三○)을 사긔혐의로 붓잡어다가 취조중인데 그는작년 십일월경부터 인조금(人造金)을 새로발명하엿다하야 이로써 맨든금부치수십종의 도본을그려 크게광고를내여서 함경남도로 삼수군강진면 신갈파리(三水郡江鎭面新乫坡里) 리영식(李英植)등 각지방의 삼십여명에게 멀정하게도 도금(鍍金)한 오십전내지 칠십전의비녀를 사오원에 파는등수천원의사기를한것이라고한다

西纛島强盜事件의畫報

(上)被害者가 假宿하든집 (下右)被害者林玉錫 (下左)現場을 臨檢하는警官

犯人이 被捉된現場……×票는 明瞭狀態에 빠진 犯人李壽榮

六十年來의大旱!

漢江도行船不能

上下流地方에買置한穀物薪炭運輸杜絶

"渴魔"의蹂躪에沿岸住民不安

지난달하순부터 어래 계속히 계속되고잇는 가물은인 날이 보도되는바와가티 남북각 농민들은 바닥이갈러지고 밧고랑에 버리들은 패기도전에 말러죽으며 동리마다 음료수의소동을이르켜 밥을못짓고 의복을 못빠는등 수십년래 처음보는갈마(渴魔)의조화를 보히고잇서인심은 날로흉흉해가고잇는데 최근에와서는 한강까지 조라드러처처의 행선(行船)이 결족(禁足)을 당하야 연안일대수만명의 배생활군들을 울리고 잇다한다 한강은 본시 장강에다가 청원이 풍부한 관계로 십년대한이 계속할지라도 행선의겸족까지는 당하자 안을리라고 하든바인데 금년과가티 조라들기는 륙십년전 병자년(丙子年)바께업섯다한다

방금 선박의 두절상태가 되여잇는곳으로는 상류의 둔지(芚之)와 또한 원주(原州)아래 "갈래"와 옥수정(玉水町)압강이고 하류지대로는 향주(杏州)와 문산(汶山)포반과이촌정(二村町)압강이라한다

이렁으로 한강을 생명선으로 삼고 영업을하는 경님일대 각곡물여자와 시탄상들은 요즈음 상류와 하류지방에다가 상품을 을사노코도 마음대로 운수를못해 일대곤난중에잇다한다

"骸骨挾雜"李鴻淳等

十六日頃에送局

五千餘枚의尨大한調書作成

남은것은辨償問題뿐

소위 해골 협잡사건으로 한때 세상을 떠들고잇든 리태원공동묘지의 간수장 리홍순(李鴻淳)(四九)과 그려드자로 그의 처남 김순구(金舜九)(三一) 박영옥(朴永郁)(三一)외 경성부청 위생과서긔 등세명은 그동안 룡산서에서모든 죄상을 숨김업시 자백하기에 이르럿스므로 지금 조서(調書)작성과 피해자들의 참고심문을 바삐하고 잇는중인데 오는 열엿새날게는 공문서위조, 사긔 횡령, 독직(公文書僞造、詐欺、橫領、瀆職)등 죄명으로 오천장가량의 방대한서류와함께 경성지방법원검사국으로 넘기가로 되여잇다.

그런데 이사건과 동시에 당연히 뒤를따러 일어날문제는 본지에 이미 특보된바와 가티 수다한 피해자 들에게의 변상문재로서 이것을 리홍순개인의 사행위(私行爲)라 해서 부당국은 전혀 물관주의를 갓는모양인 이상 일반의 그대와 가티 경찰에서 리홍순개인의 재산이라도 차압처분을해서 변상시키고 말것인지? 아프로의 이문제가또한 숙제그대로 남어잇서다시 일반의적지안흔 주목을 끄을고잇다한다

天氣予報

概況 七四八미리의 低氣壓은 滿洲北部를 東進中이며 七五二미리의 低氣壓은 中國天津北便에잇다 高氣壓은 日本本州의 東海上에 七六四미리를보이고 其先端은 朝鮮半島의 西部를 突出하고잇다 滿洲朝鮮日本內地모다 조곰호린구름이잇는곳이만코 엇저며는降雨도잇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大體로개이며 一時는흐린다 明日도가트며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三〇度五
昨日 最低 一五度四
今朝 最低 一六度
今日 正午 二六度八

中國料理집麵類에 洗濯用"소다"使用

本町署에서發見嚴調

십이일 본정서(本町署)위생계에서 관내중국료리집을 검사한결과 위험천만하게도 면류(麵類)에 사용하는『소-다』가 약방에서 파는것이아니라 일반세탁용의『소-다』를 거이모다사용하고잇는사실이 발견되여 즉시현품을 모다압수하는일변 엄중한 설유가 잇섯다하는데 금후로는 더욱 엄중주체할예정이라한다

民衆을欺瞞搾取하는 邪敎團體一齊彈壓

普天敎를爲始하야類似宗敎는剿滅코

公認宗敎統制도强化

전북경찰부에서는 수일전에 보천교(普天敎)에 대한 대탄압을 시작하여 당국의 류사종교취체 강화책이 드듸여 발동하여 큰 『센세이숀』을 일으키고잇다 그런데 경무국에서는 류사종교의 취체책에대하야 다시 간부회를 열고 금후의방침까지 결정하엿다는데 경무국에서는 학무국과 협력하야 공인(公認)종교의 통제를 강화하는일방 류사종교의 취체에 대하야는 보천교류의 사교(邪敎)에 대하야는 일절부당하와 헌금(獻金)등을엄금하야 전부해산식히어소멸케한다 또그와의 류사종교에대하야도 엄중히 감시하야 치안상또는민중을 괴만 착취하는등의 행위가잇거든 단연한 처치를 할터이라한다 그리하야 일즉우원(宇垣)총독금간과인 심전개발운동의 전면적전개에잇서서 종교의 통제와 부흥(復興)에 일대운동을 이르킬터이라는바 이것이 조선내의 사상방면은 물론 사회각방면에 미치는바 영향과 조선정신문화에 미치는바 영향이매우 클것으로 주목되는바이다

運動競技

柔道有段者會主催 百六十名參加로開幕 紅白戰

朝鮮柔道有段者會主催의 柔道聯合紅白戰은 豫定과가티 十三日午後一時三十分부터 鍾路青年會館서 普專、徽新、大東、普成、培材、順道、朝鮮硏武館、中央基青、中東等 九個團體百六十名이 參集하야 盛大히열리어 石鳳憲氏의開會辭가잇슨後 紅白兩軍에나노아 熱戰은 展開되엿다(戰績은翌刊에)

中央基青主催의 씨름大會 廿五日부터三日間

朝鮮中央基督敎青年會主催의 第九回 全朝鮮씨름大會는 來廿五日、廿六日、廿七日의 三日間(每日午後八時半) 鍾路青年會館에서開催할터이라는바 參加希望者는 廿三日까지 參加金貳十錢을 添附하야 主催側에 申請하기를바라며 組合抽籤은 廿四日午後八時부터 同會館에서 行할터이라한다

◇競技及規定

一、本大會는 朝鮮씨름의 技術을向上케하며 運動精神을 修養함으로써 目的함

一、本大會는우리씨름의 優勝을決定함

一、本大會는 最後優勝者에게本會에서 制定한 優勝盃를 授與함(決勝戰에 入選은三等까지 選拔함)

一、本大會는 本會에서 制定한 씨름規則에依하야行함

一、本大會에入選한 地方選手에게는 旅費의一部를補助함(但三等汽車賃에限함)

서울保健體操團의 金華山草起會

隊員은大大的으로募集

서울保健體操團에서는 市內西大門外 金華山에 集合場所를두고 每日 保健體操와 相互親睦을 圖謀하고잇는데 이번에더욱 登山씨ー슨을 機會로 이에 뜻잇는이는 一般男女老少를 勿論하고 이모둠에 多數參加하야주기를 바란다하며 指導者는 서울保健體操團幹事 高文相、鄭雲龍兩氏라고한다 ◀時間=每朝五時半부터 同六時까지 ◀實行種目=丁抹民衆保健體操 ◀服裝=隨意

高麗卓聯主催 卓球리ー그戰開催

高麗卓球聯盟에서는 지난十日午後八時부터 中央基青社交室에서 理事會를열고 今年度聯盟戰은來七月十一日에 開催할것과 卓球講習會는 八月十日부터 同五日까지 朝鮮中央基青體育部에서 開催할것을 決定하엿다한다

徽中2 京商1

京城中等野球리ー그決勝…京商對徽中戰은 十二日午後四時四十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田上、井、木森三氏審判下에 京商의 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二對一로 徽中軍이 優勝하엿다

京商 010000000 1
徽中 000000110 2

水上代表京城通過

伯林올림픽에 出戰하는 日本水上代表一行 二十二名은 松澤一鶴以下役員五名 引率아래 十三日朝 釜山上陸、同午後七時半 京城을通過하야 同午後三時 二十分 釜山을떠나 途中奉天、新京、哈爾濱에서 各一泊하고 二十六日 伯林에到着할 豫定이라한다

專門校陸上 盛況裡에開幕

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三回全朝鮮學生陸上競技大會 第一日은 十三日 午後零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리어 이날의 出戰校는 멀리 大邱醫專을 비롯하야 城大及豫科、普專、延專、法專、高商、高工、水原高農、醫專等十校의 二百五十名에 達하야 盛況裡에 開幕되엿다

【四百米障害決勝】▲A組 1高商 四五秒九 2大邱醫專 四六秒九 3法專 ▲B組 1高農 四五秒七 2醫專 四六秒二 3高工

【四百米競走豫選】▲A組 1丸山(高農) 五五秒三 2中島(高商) ▲B組 1金鍾元(醫專) 一分一秒二 2沈相九(業專) ▲C組 1桐木(法專) 五八秒一 2池田(城大) ▲D組 1辰己(大醫) 一分四秒一 2坂口(醫專) ▲E組 1張洪植(高商) 五六秒一 2堤(高工) ▲F組 1崔개(高商) 五五秒四 2山田(高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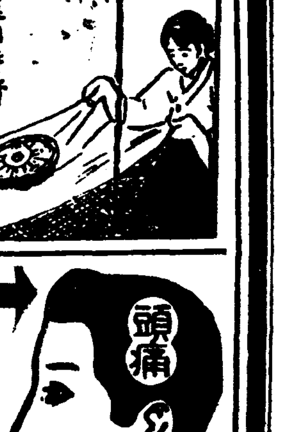
運動界人事

▲鄭土達君(鐵道庭球選手) 十二日平北熙川郡長洞面舘里秀第에서 遭內艱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阿峴 本舖 普生藥房

우리옷감조선모시 (韓山苧・扶餘苧 保寧苧・靑陽苧) 忠南苧布
注意 近日各地에不正한檢査證과不合格한等級이有하오니特히『忠南檢査』證을注意하시오
特約店 一都市에一個所式設置하오니至急申込하시요
生産元 忠南苧布共同組合 朝鮮總發賣元 太平商工合資會社 京城鐘路二丁目四六 電話本局(2)○九七三番 電光(3)一五四四番
取引銀行 朝鮮殖産銀行本店 朝鮮銀行本店 東一銀行南大門支店

家庭用特許 電氣다리미



頭痛 は 齒痛과 頭痛에 神經痛에도 大端 一回効散
당장낫는다고好評이자자한回効散은 잘듯는다고어느藥房에서나近者에평장이잇다고한다 一回만보다實際一次試用하여보시면안다
本舖 東京大阪 森田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슴

國産 カッピー香水
斷然 他品의追從을不許하는 品質!優秀高尙한芳香! 때는國産カッピー香水時代가왓슴니다!
良品은빗난다 香國豐製品
東京牛込 田端豊香園

土地建物擔保償付 定期貸付 月賦貸付 土地建物賣買 土地建物坪價鑑定 月賦建築及建築請負 東京建物株式會社 京城支店 京城黃金町二丁目五五 電本二六一、二六二番 振替京城一八八番

ノアピ葉山 家庭用(竪型) 500圓以上 學校用(平台) 1‧000圓以上 (全鮮各特約店에有함) 日本樂器會社出張所 (京城本町一‧電本三四八五) カタログ贈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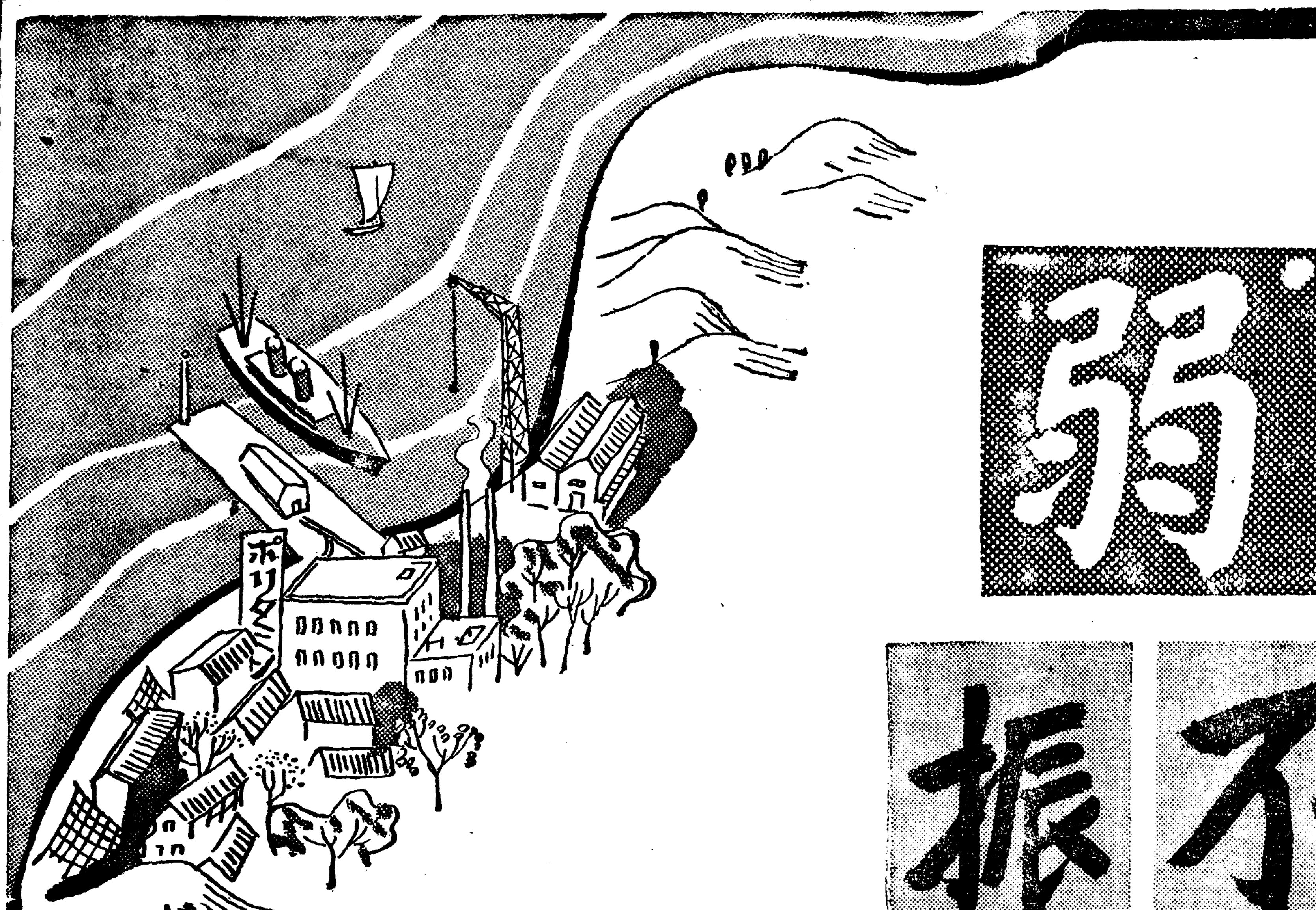
朝報案內
店員 新京藥局에갈店員남의게印象이조코國語를잘하고長久히勤務할者는 京城大學病院前 東邦製藥會社로來談하옴
開業就職 自由 一個月卒業化粧品科、石鹼科責任通信敎授(案內書要郵券二錢)京城府都染町七十四番地 松植化學工業社 振替口座京城二一五〇五三番
恩給 長期極低廉立替 他에比較皆最有利信用은弊店의特色乞照會回答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カメヤ旗店 京城黃金町五丁目 旗 カタログ進呈 國旗 萬國旗 校旗 優勝旗 會旗 寫眞旗 幟幕

創立明治參拾貳年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京城南大門、同鍾路、同東大門、同本町二丁目、同本町四丁目、龍山、仁川、平澤、利川、淸州、群山、全州、裡里、長興、康津、統營、馬山、鎭海、釜山本町、同牧ノ島、同富平町、同榮町
出張所 蔚山、方魚津、元山、永興、咸興、端川、淸津、羅南、會寧、沙里院、信川、新義州、定州、平壤、同大同門、鎭南浦、載寧

自作自給하는織組機械와製系機械

(足踏織造機) (足踏製絲機) (手織機)
營業品目 足踏織造機 手廻整經機 足踏製絲機 轉馬機 其他付屬品 手切絹絲 足踏製絹絲 等造繰絲 人造絹絲 生麻絲 木綿絲 苧麻絲 加工染色絲 各種
京城府長沙町八七番地 東洋染織機料部 振替口座京城一八〇三 電話光化門



諸病衰弱
食慾不振

慢性呼吸器病患者를爲始하야

慢性胃腸病患者、手術後患者 等이 衰弱에 빠지는것은、健康者에 比하야 體蛋白消耗가 甚한것과、胃腸機能이 衰하야、그補充ㅣ榮養ㅣ이몸에붓지안는까닭입니다。

◆體蛋白의 補給은、肉類와 卵가는 滋養物의 攝取로、어느程度까지는되는대、그것도 胃腸이 健全한때에 限한다고하는것은 蛋白質은 그대로 體內에 吸收同化되는일은、絶對로업고、반듯이 各種아미노酸에 消化되지안흐면 아니되는까닭입니다。

◆그리고 蛋白質보다도 아미노酸편이 消化가 不必要한點에잇서、또는 食慾增進 其他特殊한 生理的作用을 가진點에잇서、그効果率이 놉흔때문인데**ポリタミン** 製出의 目的도 이에잇습니다。

內科、産婦人科、小兒科、外科等各科多數의醫學博士의處方推奬을어든까닭도、實로近代榮養學理에맛는아미노酸綜合劑인까닭입니다。

다른榮養劑에比하야 優秀한獨自의作用

ポリタミン은 極히 榮養價가 豐富한動物性蛋白을 原料로 胃腸消化와가티 酵素로써 消化한것으로

血液素、筋肉素、發育素、食慾素、活力素、호르몬素

等各種의 有要 아미노酸을 豐富히 包含하고잇습니다。

따라서 微量의 아미노酸을 含有한것과 原料그대로의、粗雜한未消化性 榮養劑와는 全然本質을 달리함으로 다음과가튼 獨自的作用을 發揮합니다。

1. 消化가不必要한즉胃腸이弱하야消化不良한분도 榮養價値가至大함。
2. 組織細胞를賦活하야、新陳代謝를잘시키고、抗病治療力을增進함。
3. 胃腸消化의分泌를促進하고、食慾을增進시켜、胃腸을튼튼히합니다。

唯一의アミノ(아미노)酸綜合强壯劑

ポリタミン (포리타민)

適應

結核性體質인분
病中病後에衰弱한분
肉類와、鷄卵을먹어도、榮養不良한분
胃弱食慾업는분、産前産後呼吸器가弱한분
호르몬不足으로起因한虛弱者、疲勞하기쉬운분
病든분 腺病質의어린이等

甘美味의液劑

小瓶（一圓五五錢）
中瓶（二圓五〇錢）
大瓶（四圓五〇錢）

各地藥店에서販賣함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關東代理店 東京市本町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製造元 大阪市堀上通 大五製藥株式會社

36—348(〇)

▼귀여운천연▲

童話 수정봉의 달빛 (三)

成俊德

그런즉 개는도어데로 가버리엿습니다 지칭몽을 그여메잇는 바위에다 걸더리고잇스니 때는벌서 십오야의 뚜렷한달이 수정봉 봉오리를 비처서이산속 올낫과가티 화ㄴ하게빗첫습니다 이때 롱갑이는 간신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드러 수정봉쪽대이를 치여다 보앗습니다 그런즉 밝은수정봉 꼭대이에는 양(羊)의 떼를 몰고서 오락가락하는 어린아해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잇섯습니다 이러케 기픈산골짝에서 사람의 그림자를찻게된 롱갑이의마음은 얼마나깁벗겟습니까 그는손을노피들고 불러보앗습니다

『어ㅡ이ㅡ』

그런즉 놉드라케보이는 수정봉꼭대이에는 그어린아해가 롱갑이를 나려다보고는 분주히 양의떼를 헤치며 엇떤 젊은청년 두사람과함께 쏜살가티 나려오고 잇섯습니다 또 그의 아메는 롱갑이를 구해준 개가 설냥설녕 오고잇섯습니다 그리고는 롱갑이아메와선 옷득 섯습니다 오래간만에 사람을 맛나게된롱갑이는 반가워서 그사람들에게로 들어덤비며 목을노아울엇습니다 그때 젊은청년은롱갑이를 등에다업고 그어린애와함께 수정봉으로 올나갓습니다 험한산길을 평지와도가티 뚜벅뚜벅거려가는이청년은 얼마름을올나가더니 그는별안간옷득섯습니다 롱갑이는등에업펴서 그청년에어개넘어로 아래를나려다 보앗습니다

그는엇더한 절벽에가서 잇섯습니다

이를본 롱갑이에 갑이콩알만해젓습니다 그는 꼭자긔를 이절벽에서 내리떠려죽이는줄만아럿습니다 그런즉 이상하게도 건너편 절벽바위틈에서는 넙적한바위가 혀빠다가티 쑥내밀드니 저편언덕과 이편언덕사이에 다리를노코 잇섯습니다 이 청년은 그때서야 그 돌다리를 밟고 롱갑이는 다시 뒤를 도라다보앗드니 그돌다리는 또한편쪽으로 드러부터서 다시 절벽을 이루고잇섯습니다。 한참업혀오니 롱갑이의 눈은 별안간햇빨을 치여다보는듯이 눈이 부시엿습니다。 그는 수정으로만 꾸민 큰 루각이 이산봉오리에가 옷득 서잇는데 참으로 그비치 황홀찬란하엿습니다 또 그미레는 수만마리양의떼가 물결가티 몰려잇고 또한편쪽에는 사슴의떼가 또 몰려잇섯습니다 그때어린아해는 다름박질을하야 그루각으로올라가 수정루각에문을열고드러갓드니 그안으로부터는 신수조흔 하라버지한분이나오며 롱갑이를 어루만지면서

『애 네가앗가 저어린애를 구해주엇다지 참고맙다』

하섯습니다

롱갑이는 너무나황송해서 눈물만 흘렷습니다 그하라버지는 주머니에서 커다란이삼(人蔘)하나를꺼내주엇습니다 롱갑이는사양도업시 즉시바더서는 배곱흔판에 모다 먹어버렷습니다 그런즉 별안간몸에는 귀운이왼도랏습니다 이하라버지는 또다시롱갑이를 다리고 수정봉꼭대이에잇는 수정루각을 구경식혀주엇습니다 그리고는 그롱갑이더려이곳에서 가티살자고 하엿습니다 롱갑이는너무도 황송해서 대답을엇는 못햇습니다 그러나 또한편으로 생각을하니 집에서는 어머니와아버지가 자즈실것가태섯습니다。

그래 그는 엉엉울기만햇습니다 그런즉 또그하라버지는 여러가지로 달내엿습니다。

—이튼날아츰 롱갑이는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워서 집으로 가겟다하니 그하라버지도 한편 눈물을 흘리시며 조흔수정을 한보짐이나 싸서주섯습니다 그리고는 전날건너다준 그청년을불러서 길을안내하야 다시 자긔집으로 도라왓습니다 롱갑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아페와서 지난밤 이야기를 일일이드리고 그수정을팔어서는 큰부자가되엿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름날밤이면 이수정봉에서 왜 사람들이 꽉꽉죽는줄 아섯습니까? 그는저 ㅡ욕심만흔 사람들이 이수정봉에잇는 수정을 탐내서 올너만가다가 압서 롱갑이가 업혀서 건너가든그돌다리를 올나서 그가리 떠러저 죽은것이엿답니다

—끗—

미인의첫조건은 비단가치 고운살결

망처노코난뒤는후회나막급 이런경우를주의하자

부엇네의 미론는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야도 살ㅅ빗과 살ㅅ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원광으로 론지하오면 그저 살ㅅ비치 화하여야 조치오만은 가까이 보아서는 아모래도 살ㅅ결이 고와야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살ㅅ결은 살ㅅ빗과 달러서 어느정도까지 가다듬을 수가 업지 안습니다。 그러타고말하는것은 만히는 주의를 잘하지 안키때문으로 살ㅅ결을 버리게 되는까닭입니다。 이미 살ㅅ결을 버리어 노코서는 아모리 거울을 보시면서 탄식을하신들 무슨 소용이 잇사오리까? 차라리 미리미리 주의를 잘하서서 살ㅅ결을 조하지도록 하시는것이 조치안하오리까?

살ㅅ결을 버리게 되는 원ㅡ가 잇습니다。 첫재는 처음으로 인은 대체로 세가지의 경우ㅡ로 몸을 가지실입시에 피부의섭생을 게을리하신 탓이요 둘째는 아기를 나흔 피부의섭생을 게을리 하신 탓이요 셋재는 낫븐 화장품을 쓰신탓이요 넷재는 화류ㅅ병이 잇거나 심신이 넘어 피곤하거나 한탓입니다。

(처음으로 몸을 가질때) 그만때부터 녀드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동시 뾰로지도 만히 나게 됩니다。 녀드름으로 살ㅅ결을 망치는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뾰로지로도 의외의 봉변을 보게 되는 수ㅡ 업지 안습니다。 거긔대한 에 방책은 첫재로 살을 정하게 하는것입니다 그러고 녀드름이 생기거든 곳 맛사지를해서 뽑아 버릴 일과 뾰로지가 도뎌라도 함부로 짜지말일을 주의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런주의를 나히어린 그당자에게청하는것은 넘어 무리한주문입니다 이때는 그당자보담도 오히려 어머니되신분의 주의가 잇서야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애기를 나흔 후) 애기를 배엇슬때는 흔히 기미도 끼고 살ㅅ결도 거칠어집니다。 그때는 억지로 그러치안하려야 할수업는 노릇입니다。 그래가지고 애기를 나흔 뒤에가서 섭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써 전보담 오히려 나허질수도 잇고 아조 그대로 구더질수도 잇습니다 애기를 나흔 뒤의 섭생이란 첫재로 영양을 잘 섭취하는것이지오마는 그이외에 피부위생도 주의하서야 합니다。

(낫븐 화장품) 한번발려 보아서 무엇이 돗거나 살이 거칠거나 하는 것은 일체로 쓰지 말아야합니다。 그러고 어떤 백분이든지 백분은 크림이나 화장수와 달러서 살에 밧듯이 조흔 것이 아니니까 될수잇는대까지 백분은 만히 바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나、베니는 백분보담도 더 한층 살에 나뿝니다。 그러키때문으로 뻼베니 즉접 살에 바르지 말고 분우에다가 발려야 하며 입살베니는 잘 벗겨지지 안는것 보담 잘 벗겨지는 것을 발려야 합니다 흔히들 잘 벗겨지지 안는 입살베니가 조흔것으로 아오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갑이 비싸고 품질이 고급일싸록 잘벗기어 진답니다。

(화류ㅅ병과 심신피로) 화류ㅅ병은 안 걸리는 것이 첫수요 빨리 고치는것이 둘재ㅅ수나 그이외에 별다른 방법은 업습니다。 그러고 심신피로도 그저 파하는수박게 더조흔 도리가 업습니다。

"잠깨워드리지요" 이야말로첨단적직업

이것은 저ㅡ거저태평양건너이야기입니다만 뉴-욕에서직업을이른 스물네살된『라모나·제닝스』란 아가씨가 단연 뜨엇보다도 첨단적인 직업을고안해가지고 성공을 햇다는 우리가듯기에도 유쾌한 뉴-스가잇습니다

『제닝스』양은 직업을일곤뒤갑작이 머리에떠오른것이 『늣잡자는분을 깨워드리는 직업』이엇습니다 즉아침 여섯시에는 세상업서도 픽이러나야할텐데 오날느잣자는 버릇이잇는데 암만해도 그시간에이러날것갓지 안흔니 좀 깨워주오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잇습니다。 그리면 이쪽에서 지정한 시간에 그신청자에게 전화를 거러、매우부드럽고 아름답고、그야말로 명랑한 목소리로 『지금이 여섯시얘요、날이퍽 청명해서 기분이 조쿠만요。 자 어서 이러나서요 어서、네?』이런식으로 잠을깨워줍니다。 말하자면 자명종의 역할을 하는셈입니다다만 귀아프지안코 다정스러운『사람자명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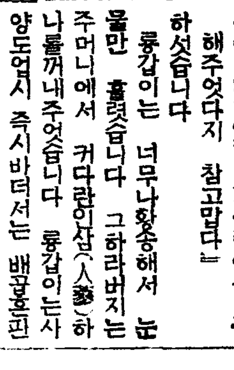
이장사가 처음으로 시작되자마자 뉴-욕의 젊은양반들에 대인끼를 어떠『제닝스』양은 두사람의 미인조수를 두고 게름뱅이들을 깨우기에여간여간 밥분게아니랍니다。 그런대 요새와서는 영업범위를 터넓혀 다음과가튼『서-비스』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야호평을 밧고잇다합니다

▼어린애기를 거두어드립니다
▼귀하신댁의 강아지의운동하시는것을 돌보아드립니다
▼귀부인께서 머리감으실때거드러드립니다
▼『카테일·파-티』가 잇스시면급사로가드리지요
▼댁의 로마님모시고 극장에가드리겟습니다
▼아주 수줍은청년을대신해서 그의애인에게 보내실 선사품가튼것을 사드리고、꾸미고、보내는일을 마러보겟습니다

★曆★

六月十四日(日) (廿五日)
建癸巳四月小
丁卯·火·昴·收
●祭祀에宜함
●小滿二十一日(舊初一日)
●芒種六日(舊十七日)

短篇小說 아카시아 (十二)



安碩柱 作
金熊超 畵

영섭이가 방에드러오니 어린아이는 앗가보담 별의상이업섯다 영섭이와 유모는 일섭이의아페안젓다 그아이의 죽엄의고개를바라보고안젓는 두사람은 석상(石像)가치 조금도 동요되지안코 긴장된두사람의숨결은 어린아이의 꺼저가는생명에게 숨을우러너흘것가티 마치 저들의 생명의한쪽을 가져가기를 기다라는것갓다

그들은 저들의심장의 고동하는소리가 얼마나큰가를 이런때에아랏슬것이다 그들조그만 심장의고동이 놀라울만치 그들의귀의고막을 울릴것이다 이조그만한인간의 그조그만 심장이뛰는동안 그들은 인간의려사를 쏫는다 만약 전인간의 심장의 고동소리를합께듯는다면 그것들은무엇인가 거대한것을 낫키워하야 공작하는소리와가티 생각할는지 모른다 지금이두사람은 이인류러시에 한개의 새로운 별가튼말하자면 비출 맨들고자해서 이아이의생명의회복을 기다리고 또는 자긔를 심장이 그공작을하는소리를끗는것인지 모른다 유모는몰라도 영섭이자신만은 그것을느꼇스리라 만약 영섭이 자신도 그것을 인식치못한다해도 영섭의 심장만은 그공작을 하고잇는것으로 볼수박게업다

만약 일섭이가 죽엄의고개를 넘지안코 눈을번쩍뜨고 사러난다면 그것은 긔적일것이다 그러한긔적은 신화(神話)에서나、옛날전설에서만 잇는것이아니라 간혹 어느시대、어느사람에게잇슬수잇는 일이라는것은 지금 이일섭이를보면 알것이다

종교를 밋는사람은 신령의권화라든가 도움이라든가、하나님의 손이다은것이라고 보고 그들은 자긔들이거짓낫다거나 신의령통이라고 즐거워할지모른다

그러나 이일섭은 결국 주사한대、현대과학의힘의 긔적을본것이다 물론 그주사속에도 신이게시다고하면 구지 욕일필요업다 어느때는 그런신앙이 어느한인간들의 일생을 길브게하는때도 잇는고로……

일섭이는 깨여낫다

그조그만 코와입으로 막혓든숨을터노핫다 그리고는 몸을 조금뒤첫다 또그다음은 뿌드득하고서 똥을싸는 소리가낫다 죽을때만똥을싸는것이아니요 살고난뒤에도 이러한일이일섭에게잇섯다

일섭이는 눈을떳다 처음에는 가는수름하게 떳다가 나종에는 커-다라케떳다 떠서는 두리번두리번하다가 유모를 헐금보고는 다음으로 영섭이를 보고는 벙긋우섯다

영섭이와 유모는 그제야 숨을 휘-내쉬엿다 그들은 아무한이깁븐 이순간이잇기를기다렷든바나 이러케 눈물이 나도록 깁븐일은 처음맛보는것이다

그들의엇는얼골에는 땀이흘럿다 눈물이흘럿다

유모가 대드러서 일섭의똥을치다 그때에 그아이는 발을어둥거린다 또 조그마케 아로삭인 고추갓고붓갓가튼 어엽뿐 고놈끄테서 오줌아 쪼르르나왓다

—긔적(奇蹟)이다—

영섭이는 자긔어린아들의 부활에서 어느커-다란 진리를깨다른것가티 기피감격하엿다

만약 아긔적을 자긔안해와가티 보앗드면 얼마나 깁벗슬가 이런때에 자긔안해는 자긔의몸에매달려 몸부림을하면서 깁버하엿슬것이다

그는 저러케 무서운 체험을하고 잇는 어린아들을 집에내여버려두고 술을먹고 분향(粉香)에도취햇든것을 생각하고서 실로 어린아이를 바라보거가붓그러웟다

이세상에 무수ㅡ한 그아비들이이것을 생각해야만 하려라하얏다

◇

이튼날아츰

일섭이는제아비의 품에안기여 다시 그제아비의 승겁게 내민코를 쥐고 흔든다。 유모는 부억에서 밥을 지으면서 이것을 내여다보고 우섯다。

—그 의사가 착한 사람이 되여서—

사실 그 공적은 그 의사에게 돌러보낼수박게 업섯다。

그는 그 침착하고 어질고 라해가 깁고한 그 의사는 이러한 가엽슨 무리들의 벗이요 라웃이라하엿다。

그래서 그는 이 긔적을 그의사에게 알리지안흐면 안되리라하고서 어린애를 유모에게 맛기고 박게나아가 그 의사에게 전화를 거럿다。

의사는퍽깁버하는모양으로 조금잇다가뛰여왓다

의사도 그아이를안고 둥게둥게를하며 다시 주사를 한대를 주엇다

영섭은 그의사의손을 힘잇게쥐고한말이다

『다-선생님의힘이올시다』

『무얼요 우연이라는것도잇지요 현대과학이 발달되엿다하드래도 어듸미들수잇습니까 나도 그것을와햇스니까 하는노릇이지요』

두사람은 우섯다

이때에 박게서 영섭이가다니는 회사의 급사 아이 인화이가뛰여들어왓다

『엇재왓나』

영섭은 좀놀란긔색이다

『전무께서 이것을 갓다드리라고요』

급사아이는 편지를 영섭에게 내주엇다

라디오

十三日 (土曜)

◇午後六時三〇分 讀法指揮(敎育勅語ㅡ드(拼用)(三)) 延禧敎授 鄭寅燮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時事解說 朝鮮日報社主筆 徐椿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三)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 『안해의秘密』
—配役—
夫役……河一瑱
그의妻(貞淑)……李英惠
그의동생(英純)…林景淑
光浩……宋芝園
中國料理商……文 烈
下女……池蓮玉
放送劇協會
演出 李 熏
効果 楊 薰
◇同九時一〇分 赤壁歌 一、赤壁歌 二、제비가 三、달거리 郭山月 郭明月
◇同九時三五分 音律 一、鄕唐交奏 二、仕館風流
奚琴 池奉石 大笒 金一聲
細笛 李點龍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郞
◇午後零時五分 輕音樂
◇同三時三五分(東) 詩吟 大塚倩之
◇同六時二五分(東) 生活改善講座 柳橋源太郞
◇同六時 幼兒에의뎃날이야기
◇同七時三〇分(東) 歌謠曲 山野巡 伴奏日本빅타管絃樂團
◇同八時二分(東) 舞臺劇 市川左團次外
◇同九時 時事解說

十四日 (日曜)

◇午後零時五〇分 놀냥外 一、놀냥 二、압산타령 三、뒷산타령 蘇完俊 韓仁學
◇同一時二〇分 洋樂(延專主催第五回全鮮中等學校懸賞音樂會入賞者) 柳開東
◇同二時 野球試合實況—全京城對全大邱—京城그라운드에서—
◇同六時三〇分 맨돌린合奏
一、行進曲『希望』
二、舞曲D마스르카……샤뷔오作曲
E가보트……카라ㅡ체作曲
三、夜曲……코펠리ㅡ나作曲
四、圓舞曲『森林의消遙』……아렛시오스作曲 이탈리안·만돌ㅡ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同八時 『農民의저녁』 田榮澤 營農改善座談會
京畿道産業技手 朴善日
同 農會技手 南基徹
農村美談 外三人
◇同八時四〇分 『豚皮의宴』 申鼎言
◇同九時〇五分 農夫歌 丁南希 鄭相鮮
◇同一〇時 朝滿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 歌謠曲(DK懸賞當選作品) 一、農村振興歌 伴奏 李圭南 PK管絃團
(가) 文尙俊作詞 洪蘭坡作曲
(나) 林潮作詞 李冕相作曲
(다) 車輪重作詞 同
二、동백꽃질때…林一影作詞李冕相作曲 三、鴨綠江 康承翰作詞 洪蘭坡作曲

第一放送

◇午前一〇時四〇分 (大)講演 松井房治郞
◇同一一時一〇分 農民데ㅡ實況 木村忠衞
◇午後〇時五〇分 辻音樂
◇同一時二〇分 浪花節
◇同一時五〇分 獨唱과管絃樂 獨唱 鈴木富美子
◇同三時二〇分 大阪라듸오、오케스트라 新日本音樂
◇同六時 DK아이들이야기 元町小學校兒童
◇同七時三〇分 孔子廟祭典樂
◇同七時五五分 俚謠 台南市서中繼
◇同八時三〇分 落語 蝶花樓馬樂 熊本縣玉名郡横島村
◇同八時五〇分 라지오드라마 淸川玉枝外

十五日 (月曜)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굿거리
大笒 方龍鉉 細笛 丁元燮 奚琴 金德鎭 杖鼓 池龍九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 『부엌을깨끗이합시다』
◇同六時三〇分 兒童劇 『希望의무지개』全二景 버들피리會
—崔秉和原作太成均脚色—
—【配役】—
英姬……吳信任 先生……李雲海
아버지……鄭元根 宮順……李玉珠
洞里老人……韓東熙 醫師……崔景得 生徒一…金容始 生徒二…鄭淑花
伴奏 버들피리伴奏團 指揮 太成均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解說 鄭戌順
◇同七時 産業ニュース 經濟解說 中央高普 李常薰
◇同八時 講演 〃食物과壽命과의關係〃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調 沈淸歌 丁貞烈 鼓手 池龍九
◇同九時 孔明歌外 一、孔明歌 二、배다락이 三、흥타령 四、개성난봉가 五、방아타령 白牧丹 鄭錦紅
◇同九時三〇分 歌詞 一、將進酒 二、漁夫詞 文明仙 金蕉紅 金永根 大笒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英語講座 花園兼定
◇同一〇時三〇分 宗敎講演 前田宥禪
◇午後〇時五分 (東)모던小唄 淺田七五三
◇同六時 (名)이야기
◇同六時二五分 (東)英語講座 鹽谷榮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門野重九郞
◇同八時 (東)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三〇分 (東)義太夫
◇同九時 (東)講演 神田伯治

キッコーマン醬油

景品附大特賣

各印共 十六リツトル 一樽に每 鹿子蔦模樣小井五人前 一組
各印共 二リツトル 一壜に每 半磁器彫刻模樣貝形三五皿 一枚
(萬)印 八リツトル 一罐に每 鐵鉢形山水模樣刺身皿(小皿付) 一組

無漏進呈

特賣區域 朝鮮全道

天下一品

キッコーリウ醬油
チガミリウ醬油

宮內省御用達 野田醬油株式會社

第二回全朝鮮音樂競演大會

天分의聖戰 至上의樂冠

오라! 숨은天才들이여

第二回 全朝鮮男女音樂『콩쿨』로 열려진 樂壇出世의 登龍門

싸혀질 音樂文化의 金字塔

우리朝鮮文化의 發展과 向上을爲해서 微力이나마 모든方面으로 心血을 다해온 本社에서는 그 誠意의 一端으로 昨年에 全朝鮮男女懸賞音樂競演大會를 主催하엿든바 果然 이耿耿한丹衷은 알녀진바잇서 全社會에서 이러나는 歡呼와 支持의 熱狂的反響은 洪水와가티 澎湃하엿섯다。

그래서 全朝鮮 坊坊谷谷으로부터 멀리는 外地에가잇는 숨은 音樂家들이 오로지 自信잇는 力量과 技術만으로서 한번 出世의 龍門을 두다리려는 불타는 野心을 가지고 이 聖戰에 參加한數가 實로 一百二十餘名을 넘엇든것이다。

지금에 생각해보아도 當時의 光景은 진실로 우리音樂史上에서 처음으로보는 한개의 劃期的頂點을 그렷스니 斯界의 權威를 總網羅한 審査員諸氏들이 心血을 傾注해서 嚴肅하고 周密하게 審査한結果 入賞된 新人 세분의 榮譽와 矜持는 우리音樂殿堂을 再建하는 礎石이되엿즉하엿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初志는 七分의 成果와 收穫을 어덧다고 할수잇스나 엇지 이것만으로서 滿足하랴?

본래 이事業은 本社의 百年大計의하나로 始作한것이다。 不遇의 天才를 여긔서發見하고 또한 여긔서 培養해서 장차 우리 樂壇으로하여금 世界的水準에닷도록하는데 最大의貢獻을 드리지아니하면 마지안니할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長久한 計畫미레서 第一回의· 빗나는 成果를 비추어 今番 第二回 콩쿨을 열면서 滿天下 숨은 天才音樂家들을 부르는것이니 自己의 技術과 力量에對해서 自信이 잇는분은 누구이든지 이『天分의 聖戰』에 參加하라! 그리고 勝利의 榮冠을 贏得하라!

그대들을 기다리는 樂壇出世의 登龍門!

그대들을 기다리는 音樂文化의 金字塔!

審査員들의 말슴

技術的注意二三

피아노科 金永煥

(一)엘조-가락힘을 平均히하여 音을明瞭히할것

(二)녹멜로듸는 特別히注意할것(右便手에멜로듸가 잇슬때는 右便手를注意 左便手에멜로듸가잇슬때는 左便手의音을 똑똑히)

(三)樂譜上의 速度記號의速度를注意하여 練習할것 即너무 [illegible]하거나 너무빠르지 안토록 할것

(四)樂譜中의잇는 裝飾音을부드럽게明瞭히할것

(五)樂譜上의 諸記號대로發想할것

堅實한演奏를

바이올린科 洪蘭波

朝鮮日報社主催의 全朝鮮音樂콩쿨도이제 그第二年을마지하게되어 이만치 昨年의經驗에 빗최여 모든點에 잇서서 遺漏가업슬것을 可期하리라고생각한다 昨年度의콩쿨이 樂界에던저준 衝動도 決코적지는아니햇지마는 今年에잇서서는 한層더노픈 水準에서 評價되고 한거름더 意義잇는事業으로 認識되야 樂界人이거나아니거나를 不問하고 여긔에커드란 關心과 凝視와 聲援을 가저주기바라는것이다 혼히海外에서 열리는 이種類의 事業과 우리의콩쿨과를 比較하야 그質에 잇서서떠러짐을 말하는이도잇지마는 그러나 어찌것숨에배부르기를바라리요 羅馬의文明이 一朝에된것이 아니라는말과가티 우리는 해를거듭할수록 그質을노피고 最善의努力을하야 未遠한將來에 이콩쿨이 名實相副한 樂壇의登龍門이되도록 힘씀따름니다。

昨年에도 내가審査員의 한사람으로 應試者諸君에게 말한바이지마는 여긔에應試하는이는 모름직이 音樂에對한眞正한理解와함께 콩쿨에對한眞正한理解를 가지지 안허서는 아니될것이다 一時的 虛榮心에서나 投機的手段에서 應試한다면 設使그가 表面에낫다난技術로는 入賞을햇다하더라도 그는엄의藝術家로서의 將來를 自滅식히는結果를 가저오는同時에 이콩쿨의 意義를 沒却식히고 使命을 阻害하는 害를입는일에不過할것이다 그럼으로 말하자면 自他가共히 害를 입는일에不過할것이다 그럼으로 應試者는 몬저純正한藝術的良心에立脚하야 自己自身의 審査를바든後에 應試함이 가장 조흘줄안다。

特히내가 擔當한提琴部에잇서서 한말하고십픈것은 指定曲이비록『協奏曲』이라하지마는 어느程度까지는『에튜-드』式의 樂曲이니만큼 너머自由奔放한 演奏形式을 取하지말고 普通에나 拍子에나 其他音色과 發想等에잇서서 正當한解析과함께 堅實한 演奏를할수잇도록 힘써주기바라며 曲을 擇함에잇서서도 굿태여大曲이나 難曲을 擇함보다는 自身이 充分히 消化식일수잇는程度에서 音樂다운 音樂을 만들기에 恒常留意해주기바라는바이다。

充分한自己訓鍊

피아노科 朴慶浩

일콩쿨의 眞正한 目的은 發見되지안흔 音樂家를 찻자는것이 이한가지오 또그리하야써 音樂을 장여하자는것이 또한가지인줄압니다 그럼으로 이에 參加하는이는 누구나 이根本的精神을 沒覺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自己가 藝術에對한 良心이잇고 充分한 訓練과 精進이 잇는줄自信하면 白頭山미레서 伐木을 일삼든者라도 音樂을것이오 그러치못하면 音樂學校열두個를 卒業하엿더라도 와서 別자미를 못볼것이외다

作曲者理解

바이올린科 桂貞植

朝鮮日報社主催 第二回 全朝鮮 男女懸賞音樂大會에 바이올린 應募者에 對한 注意로 멧자를 간단히 쓰려고한다。

今番 콩쿨曲調는 비오티作曲 第二十三番 콘첼토第一樂章이다。 이곡조의 作家가 伊太利人이니만침 伊太利奏法에 依하야 演奏할것은 勿論이고 그外에도 비오티의 氣質과 樂想을 잘表情하는 演奏者라야 이曲調를 잘理解한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비오티의 獨特한것이 무어인지를 먼저硏究하여야 될것이다 이것으로 簡單히 注意식힘뿐이다。

內省的情熱을

聲樂科 鄭勳謨

近道에와서 一般의音樂에對한 關心이 漸次로노파감 한길은 本現象이라하겟스나 그러나音樂의참다운길을떠나 輕操浮化한 方面으로흐르는感이 업지안흠은 마음잇는이로하여금 一層을禁치못하게 하는바입니다 이러한意味에서 聲樂曲을 選擇함에當하여는 무엇보다도 참다운 音樂的價値를 가진曲으로 形式技巧가 過度치는안코 나 가장큰眞趣가되는曲을 擇한다는생각에서 이曲을定한것입니다 이曲을 부르기에는 무엇보다도 完全한發聲과 呼吸의 統一이업시는 이曲의가지는眞味를 表現할수업는것입니다 特히 템포에 注意하야曲全體의統一을 일치안토록 할것이며 初學者에게 혼히보는 過分한自信으로 作曲者의理想을떠나 自己流의音樂을 맨들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또 너무激情에흐르거나 感傷에빠저서도 안될것이오 恒常內省的情熱을가지고 참으로 藝術歌謠에 잇서서는 特別히 伴奏의役割이 큰것이니 伴奏者도 가든注意를가지고 協力할것입니다。

(寫眞) (上)은 昨年 콩쿨決選光景 (中)은 審査員豫備會議 (下)는 昨年入賞者 授與式

콩쿨指定曲目

=바이올린部=

『바이올린、콘첼토』 G長調 (비오티) =第一樂章=

=聲樂部=

蓮花(女子) (슈-만)

님은나의安息(男子) (슈벨트)

=피아노部=

『쏘나타』 F長調 =第一樂章= (모짤트)

今年度콩쿨 審査員氏名 (無順)

=바이올닌科= 洪蘭波、桂貞植、蔡東鮮

=피아노科= 金永煥、朴慶浩、金元福

=聲樂科= 鄭勳謨

六月創作評 【七】

主觀强調에依한 事實의劇的虛構

朴英熙

한 三年前인가 흑은四年前인가 氏의『洪水前後』를 보고 評한 일이 잇엇는데, 그때의 氏는 社會人生을 物質的一面으로만 問題를 解決하려는 熱意가 잇엇지만, 現今의 이作品에서 보면 氏는 廣汎한 意味에서 人生問題를 客觀的으로 探索코자 하야 自然體系에 발을 드디여 노앗다고생각하게된다。 人生行路가 길면길수록

廣 汎하여지는 作家의 心境이 나타난다。

이 作品은 그다지 深刻한데는 업다。 그러나 아조 自然스럽다。 자미잇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가장 現實的이다。 激動되는 슯픔은 업스나 남몰래 暗淚를 재촉한다。 그는 運命에 反抗하게하는 대신에 사람의 運命을 正確히 보려고‧하엿다。

『農牛』 李根榮作 (新東亞六月號)

어느 農村에 서생원이라는 가난한 農夫가 잇섯스니, 그의 先祖는 兩班이엿스나, 차차 집이 가난하여저서, 서생원代에 와서는 윤면장집의 小作人 노릇을 하게 되엿슬뿐 아니라 負債까지 잇서서 生活의 壓縮을 當하고 잇섯는대, 서생원은 게다가 홀아비엿슴으로 안해를 物色하든中 송참봉집에 와잇는 과부가 얌전하다 하야 가치살기를 相約하엿다。 그러나 윤면장은 些少한 感情과 債權者의 行事로, 서생원 업는틈을 타서 그의 農牛를 끌고왓다。 이것을 알게된 서생원은 아들과 한가지 가서

農 牛를차저오는데, 윤과 一大格鬪가 잇섯든바, 이에 憤함을 참지못하야 서생원을 잡어다 볼기를 따리기로 謀事하고 만일 此刑에 應치 안이면 小作을 띄것다하야 하는수업시 서생원이 볼기를 마지려『老所』로 가서 업드리게 되엿스나, 그때 바게서는 農民들이 一致團結하야 문을 부시고 드리와서 서생원을 救出하는것이、아이야기에 全部이다。

대체로 어색한 筆致는 아니다。 그러나 作中의 人物의 性格이 各各 完全히 表現되지못하엿다 모다 어느程度까지는되여갈듯 하다가는 中途半斷이되고 말엇다。 그리고 作品처음에 윤면장집딸과 서생원의 아들의 戀愛關係를 그린것이 윤면장의 兩班과, 서생원의

相 놈의 애끗는 對照를 하려인듯 하나, 短篇小說로서 본다면、그對照가 너무 巨大하야 別다른 獨立된 事件을 構成할듯이 생각되게한다。 短篇小說에도 勿論 가지가 업는것은아니나 가지가좀 길어진다든지 좀 重要한것이되면 곳中篇小說이나 長篇小說의 性質을 띄게되는수도잇다。

그러나 이作品에서 아버지와 아버지는 仇讐關係에잇고 자식과 자식은 相思의 새이에잇게된다면 그것은『로미오와쭈리에트』와가티 興味잇슬것이나 이作品에는 자식과 자식과의 相戀關係는 처음에는 重要하게 取扱되다가 그냥흐지부지되고 말엇기때문에 이作品은 두갈래의가지가 잇다가 한갈래는 그냥萎縮되고 만듯한 感이업지안타。

作者의 用意는 윤면장과 서생원의 貴賤한것을 誇張하려는一方法으로 보지 못할것도 아니나、그것이 뚜렷한 줄기처럼나타나서、作品構成上 두줄기로認識되는 까닭이다。 그리고 곤장을 맛기전에、동내 농민들이作黨하야 와서 서생원을

救 出한다는 構想이너무 安價의것으로 보인다。 正義를 직히는 作家의 構想이나 그만한 突發的 義憤이 잇다고 못할리도 업지만、이러한 描寫가 過去의 作品에 너무 흔하다。 前轍을 뙤진다고 될바도 아니지만、作者의 主觀强調에서 생기는 浮薄한 人生觀을 警戒코자 함이다。

讀者社交室

▲小生은 二十歲된少年입니다 文藝의趣味는 如山如海오나 極寒農村生活로依하야 到底히就學할能力이無한故로 諸位先生님께서 多急愛顧하시와 朝鮮人書店이나雜誌社에서든지 一次採用하여주심을要求하나이다 但食費나 要함

鎭南浦府外月谷里 張學聖

▲雜誌發刊과 圖書出版을함에當하야 斯界에趣味잇는분으로男女社員若干名을募集하오니 希望하시는분은 自筆履歷書를左記場所로郵送해주시압 但面談은謝絶

京城府淸進町三三 尹俊煥

▲京城市內에서 現在下宿生活을하시는分 又는前에 經驗이有하신分게 告하오니 下宿으로서 淸潔하고 또親切한곳飮處를 詳細敎示해주시고 普通食價는 若何程度이며 寢具給與如何까지를 併記하여주소서

勿居 金聲

▲雜誌 뿔별의發行所를紙上으로下敎하심을바라나이다

大阪府中河內郡小坂町 一讀者

▲平壤게신 有志들의 성의으로 乙支公墓山修保會가 發起되엿다고 新聞에 報導되여잇는데 其事務所는 平壤府 何番地인지 住所를 本紙 社交室을 通하야 가르처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黃海線 梨木 尹生

▲李乙浩先生에게 先生님 住所를알려주시면 朝報紙上으로 發表하신 四象醫學說批判하신데 對하여 달라 배우고저하오니 奔忙하신中이라도 朝報紙上으로알려주시든지 片紙로 하야주시면 後日 恩惠를 厚報하오리다

慶南宜寧郡中橋里 李秉喆

▲저는 今年二十歲의男性입니다 工夫는 父母님덕에 高等普通學校四學年修了하고 昭和十一年四月三十日까지 兒童敎育方面에從事하다가 現今本面(遼東面事務所)에服務係로任用되여 勤務합니다 然而아직未婚인바、京畿女性을求코저하오나 저와가티求婚하는新女性(高女卒)이 잇사오면 左記住所로 寫眞履歷書添付通知하시요(品行方正한女子) 追而의 꼴風物도 果然그룹이아니고 男性도美男子올시다

江原道金化郡遼東面長淵里 盧得默

懊惱의詩人 하이네硏究 (一)

徐丙珏

序論

하인리히·하이네 (Heinrich Heine)가 一七九七年十二月十三日에 라인河城兵셀돌푸市(Dusseldorf)에서 猶太人의長子로誕生하야 一八五六年二月十七日에 異域巴里에서 客沒하기까지의五十餘年間生涯는 決코幸福된一生이아니엇다。 生前에 이미 그의 藝術이 外國에까지 紹介되어

文名 이藉藉하얏스나 內面的으로는 異常히銳敏한感受性을 統制하는集中力의缺乏으로因한煩悶과 外部的으로는 病魔의侵入과 猶太人으로서밧는迫害 蔑視排擊等의 宿命的壓迫과 苦難等이掩襲하얏다。 그러나 하이네의一生을 單純히『不幸의人』으로 規定하야 버리는것은 早計이다。 時間과場所를超越하야 愛好를바든 하이네의詩는 作曲된것만도 五千餘를算하고 그의天才的詩才는 自己의 懊惱를 自由自在하게吐露하고 그만치 忌憚업시 內包한 思想과 感情을 意表한詩人도稀少할것이다。

하이네는 典型的神經質이엇고 徹底한利己主義者요 高慢하기짝이업는 性格을 가젓섯다。

過度히銳敏한 神經은 完全한 人生觀과 世界觀을 規定치못하야 政治에 關心을 가지고 自由解放運動의 勇敢한兵士로 自任하면서도 政治的으로 確乎한 黨派人이되지못하고 오히려 被壓迫大衆의 解放으로因하야 無智한大衆이 支配하는날을 藝術家의 立場으로 畏懼하얏스며 文學上으로도 그의

性格 의多面性은 雄大한構成力과 創造性을欠하야 偉大한 作品은 制作치못하얏다。 그러나 刹那刹那를 把握하야 新鮮한作品을 發表하야 抒情詩人으로서 時事詩人으로서 그의 反響은 絶大하얏다。 그의宗敎觀도 一面으로는 宗敎를 排擊하면서 一面으로는 切實히要求하얏다。

自己를隱蔽못하는 純眞하고正直한하이네는 頗多한 性格的缺陷과自己矛盾을 到處에서 너모나 輕率히 露出시켜서 하이네의敵과 一部俗物批評家들의 論難과 嘲罵의 暴注를바덧다。

生前에 鄕國獨逸에서 逐出하다시피 佛蘭西로간것도 生前뿐만아니라 死後까지 그의著作中의 一部가 發賣禁止處分을當한것도 詩人인反面 辛辣한毒舌家요 銳尖한 社會批評家로서 鄕國에서 바든贈物이다。

一八八〇年에 故鄕兵셀돌푸에서 하이네記念碑建設委員會가 開催되엇슬때에도 愛國者 僧侶等의

襲擊 을바더 建設計劃은中止를當하고 一九一三年에야 프랑크푸르트·암·마인(Frankfurt a. m.)에 獨逸最初의 하이네 記念碑가 設立되엇다。 最近消息에도 나티스獨逸의 猶太人排擊의 禍를입어 그의著書는 하이네가猶太人이라는 理由로 歡迎을받지못하고 冊價까지 暴落되엇다한다。

要컨대 하이네의詩는 時間과空間을超越하야 人間全體의 感情을가장아름답게 表現하고 그의 論說은 時代의 動搖와 苦惱를 가장銳利한 붓으로 表示하얏다 그러나 萬人의 愛護를 바든 詩人으로서도 文學上 一徹한 主義가 업다는 非難을 들은것은 그의 性情이 浪漫的이면서도 現實에 對한 深甚한 洞察力과 關心이 現實에서 游離한 浪漫派詩人으로서는 滿足치 못하고 理性主義를 詩에 導入하랴한데 原因함일가 한다。 하이네自身도 서로 反撥하는 理性主義와 浪漫主義의 틈에서 밧는 苦悶을 解決못하얏다。

現實에對한 銳利한 批評眼은 無比한毒舌과 苛借업는 冷酷한 批評을吐하야 鄕國獨逸의 拒否하는바되어 異域巴里에 旅裝을 풀게하고 마츰내 몽마르트르에서 永遠히 잠자고잇다。 五十餘年間

荊棘 의 길을걸어온 自我人하이네는 猶太人으로서 바든迫害와 不公平한 待遇에對한 鬪爭과 豊富한 詩的 感情에서나오는 作品을 爲하야 全生涯를 밧치고 佛蘭西革命의 大激動으로 政治的으로 産業的으로 民衆運動이 擡頭하야 封建制度의 沒落이始作되고 機械文明의 黎明이빗치고 唯物論哲學이萌芽하고 古典主義와 浪漫主義의文學이謳歌하든『崩壞와建設』의 複雜하고動搖하든時代의 支配를바든 그의全生涯는 變轉無雙하얏다。

이複雜한 環境과 特異한性格을 가진하이네를 理解하자면

(가) 三十年戰爭後의 獨逸一般史

(나) 佛蘭西革命과獨逸 墺太利의諸革命과暴動

(다) 猶太人問題

(라) 獨逸文學의潮流等을究明할必要가잇다

偏頭痛에

젊은婦人에게만흔偏頭痛(머리한쪽만아픈病)은 요즘이가장만흔것입니다

머리를비스면 毛根이 직근직근아픈것은이때문인故로먼저노-신을服用하십시요

노-신에는 胃腸其他의內臟을害하는 成分을包含하고잇지안흠으로 安心하고 服用할수잇습니다。

特히甚한 苦痛이 이즌듯이깨끗이 消失되여 머리가 爽快하게되는效果는 노-신의獨特한것입니다。

또常用하면 神經의榮養을 조케하야 心臟을强하게하는作用이잇스므로常備藥으로참으로適當합니다。

用途: 頭痛 偏頭痛 上氣 眩氣 頭重 頭腦疲勞 頭內朦朧 精神憂鬱 宿醉 船車의醉

—藥價—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荒川長太郞合名會社

連載野談

布袋記 (卅九)

申鼎言 作 金熊超 畫

그미인의 눈물 (十二)

그미인은 新혼 궁녀를 따라서 딴처소로 가는길로 곳 비단옷을 가라입고 그 新흔 궁녀가 식히는대로 여염집의 녀자와 달리 단장을하얏다。

그리고 그날밤부터 임금도아지못할 반찬을 마치 잔치집음식과가티 놉히 고여서 그득히 노흔 밥상을 밧게되엿다。

그뿐아니라 어엽뿐 젊은 궁녀들이 늘 좌우를 떠나지아니하고 모든일을 대신해 준다。

그러나 그미인은 몸에 걸친 그 조흔 비단옷이 옹당 가볍고 부드러워야 할것이어늘 도리혀 생갈대닙으로 맨든 도롱이를 입은것과 가티 원 몸이 따가운듯、또한 그조흔 음식이 옹당 입에 달어야할것이어늘 도리혀 소래를 씹는듯 쓰디썻다。

그리고 그거처하는곳은 자나깨나 늘 평안한자리거늘 도리혀 마음에 괴롭고 아픈것이 맛치 치통이나 알는듯하얏다。

『허허。하늘이 무서운일이 내남편은 속절업시 모진 죽엄을 하얏거니。내몸에 걸칠옷이라면 그것은 두말할것업는 짓옷 내가 구태여 먹어야만한다면 그것은 두말할것업는 죽물。내가 몸을붓칠 자리라면 그것은 웅당 짚자리일것。그러커늘 비단옷이 내게 당한 옷이며 이고량진미가 내게당한 음식이며 이비단보료가 내게 당키나한 자리인가 허허。하늘이 무서운일!』

하며 그미인은 그 금의옥식이 천만번 부당한것으로 생각이되엇다。

그뿐아니라 그금의옥식은 분명히 죄업는자긔 남편으로하야금 모진 죽엄을 식힌 크나큰 표적이거니하는 생각이 날때에는 그입은 비단옷을 곳 버서서갈기갈기 찌저 불에 태우고 그럭은 옥식은 손까락을 목구멍에 너허서 적거지 울한점이라도 남지안케 토해 버리고 십흔 생각이 낫다。

그런데 예로부터 면업는것은 세월이라 그미인이 궁중안에 들어와 금의옥식에 싸히지도벌서 사흘이되엿다。

어데 개루왕께서는 지난 사흘이란날자도 괴로히 보내섯거니와 압흐로 잇을날들도 거이 삼추와가티 기리하게 생각되섯다。

그런데 그미인은 날이 가고 갈사록 마치 마음이 백타불에 타는듯 장차 그외봄이 심화에 다 타버릴듯 괴로히 지내나그래도 그악의의식을 하든때와는 다르고 또는 몸치장을 볍도잇게 하매 천생으로 타고난 그어엽뿐 자래가 시시각각으로 떠옥꼽게 나타나 보이엿다。

『아!。갈수록 어엽뻐지고 볼수록 미인이야!。』

하며 늙은궁녀、젊은궁녀거누구할것업시 모와안기만하면 그미인의 칭찬을 입에 춤이 마르도록하얏다。

개루왕께서도 종종 그늙은궁녀를 불느사 그미인의 동정을 들이십새

『점점 더 어엽뻐갑니다。』

하는 말에는 어쩌지 마음을 지향할수업는 안타까운 괴롬을 또한 늣기섯다。

그런데 그미인은 날이 작구 갈사록 가슴이 메어지는 생각으로써

『죽겟다 작정하얏스니 꼭 죽어야지。그런데 죽을내야 죽을곳이 만만치안코、죽을 시간이 만만치안케되니 이시생。그러나 죽어야지 죽어도 바드시 내남편이 빠저죽은 송파강물속에서 죽어야지。그래서 내 남편의 살을 떼먹은 그고기에게 내살도 떼여허서 우리 두내외의 혼령이 그고기배속에서라도 만나서 일쪽 생전에 약속한 사랑의 의리를 속살거려야지。』

하며 어떠케든지 송파강에 몸을 먼저 죽기를 궁리하얏다。

그러나 밤낫으로 좌우에 여목이 번다하니 대궐을 버서날 도리가 어어잇스리오。

그리다가 하루날밤은 늙은궁녀 젊은궁녀가 모두 마음을놋코、곤한잠속에 잠긴때를 땅하얏다。

『올치。어데도 죽고 게레도、죽음몸。가다가 잡히면 그자리에서 죽고。마행히 잡히지 아니하면 내가 솔케죽으려는 그송파강에서 죽어야지。』

하고 몸을 꿉게일어 문밧갓으로 나와 대궐담을 뛰어 넘어섯다。

그리고 두주먹을 불끈쥐고 송파강을 향하야 다름질을 첫다。

이와가리 논틀、밧틀、죽을퉁살퉁 다름질을 치고 친것이 과연 송파강까지 나르럿고 날도 벌서 훤하게 밝어엇다。

『송파강 물결!』

그미인은 무심이 흐르고 흘으는 송파강 물결을 내려다 보며 그물속에서 남편의 혼령과 서로만나게된것을 크게 깃버하얏다。

그러나 그때에 그미인은 버로잇때、머지아니한 압길에 몬지가 펑장히 일어나는것을 보앗다。

그것은 어느곳사뗴가 급히오는 까닭이엿다。

『오!。나잡으려오는 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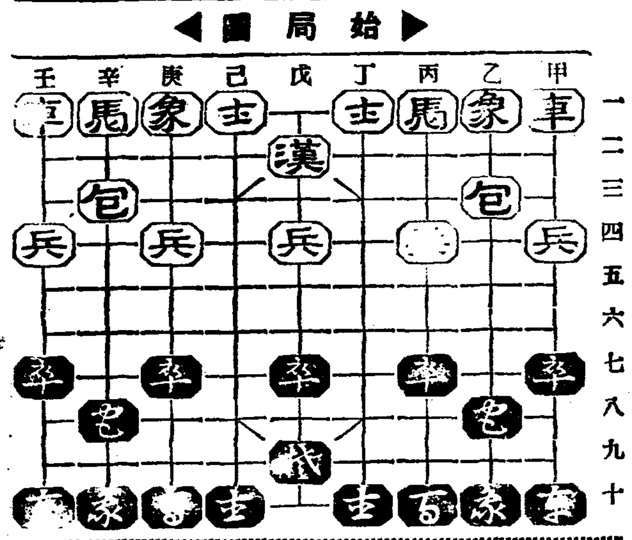
하고 그미인은 거만 치마를 푹 집어쓰고 강에 뛰여들엇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手局譜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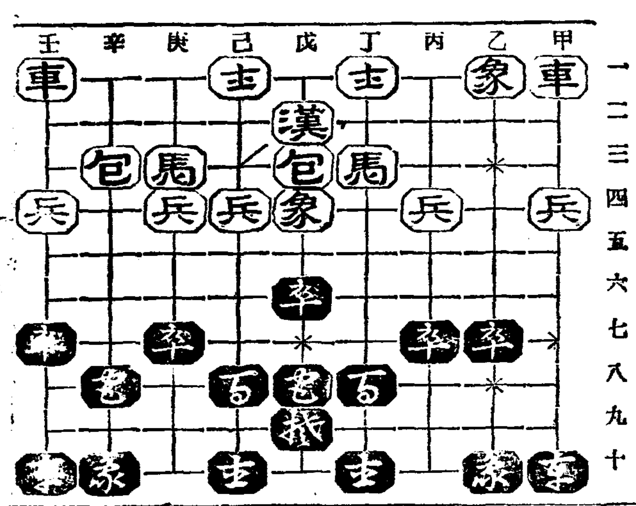
漢 李在薰　楚先手 全于石

◀始局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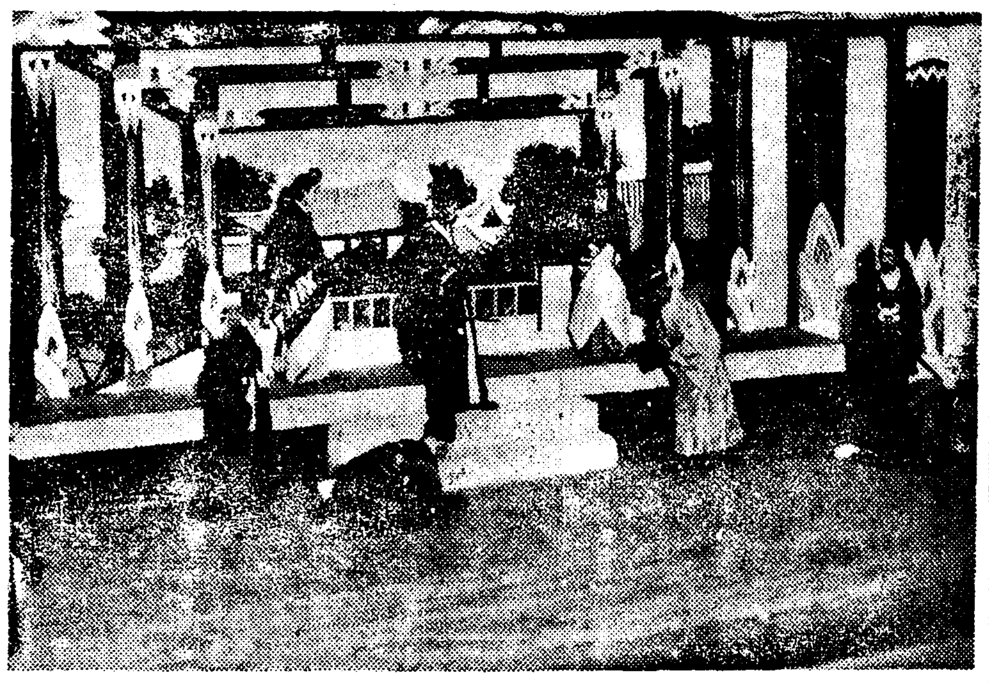
◀十手圖▶

丙十[illegible]—丁八	丙一馬—丁三
乙八[illegible]—戊八	乙三包—戊三
戊七[illegible]—戊六	戊四兵—己四
甲七[illegible]—乙七	辛一馬—庚三
庚十[illegible]—己八	庚一象—戊四



喜劇座公演

六月十日부터 市內東洋劇場에서 喜劇座中央公演第一週의 幕을열엇는바 레파토리는 林仙圭作史劇松竹莊의武夫二幕 金振門作現代劇魔都의 天使一幕 洛山人作喜劇 明日은 五百圓等인바 松竹莊의武夫全二幕은 百濟末史上에 가장뚜렷한忠臣 成忠과階伯과 그들이 길너논 松竹莊의五百武夫들이 荒淫肥滿한 義慈王의 亂政밋테서 奸臣賊子와 싸워가면서 丈夫의 道를다거나가는 心情을 그려논 史劇



(寫眞은 그第一幕舞臺面)

映畫企業의將來 (一)

崔章

『活動寫眞』은 近代文化가 나은 새로운인터스트리ー의 하나이다。에듸손의 發明以來 아즉 四十餘年을 經過하지不過하나 이젊은 歲月間에 加速度的으로 그리고 全世界에 亘하야 顯著한 進步發展을 한것은 다른事業에서는 그다지 그런例를 볼수업다。』

이런文句를 그序文으로 石卷良夫氏의 『映畫經濟史』는 始作되여다。活動寫眞의 發明者에 對하야서는 에듸손以外에 區區한說이잇스나大體로보와 이글은 適確한事實을말하고잇다。

現代映畫에關하야는藝術文化的方面과產業的方面이잇다。換言하면一方米國과가튼곳에서는 映畫가 高度의資本主義的企業의對象이되여잇고 그製作品이 商業으로서 世界를征服하고잇스며 더옥 藝術에서는 이데오로키ー와藝術에 映畫를通하야 完全히融合하야잇고元來映畫가가추인質上의 價値로 世界를壓倒하고잇다。

映畫에關한藝術論은 朝鮮에잇서서도 오래前부터 이方面의專攻家들사이에 充分히討論되엿다

『映畫가 藝術인가 아닌가하는것은 오래동안議論되고 또問題되엿스나 이映畫야말로 現代藝術의王座에올너야 한다는것이 事實로써證明되엿다。그것을 映畫가 全然機械的生產藝術이며 機械時代의 人類藝術로서의諸要件을 全部具備하고잇기때문이다』(藤伏高信氏『現代文明에서아크로페리아』)

그리고 『繪畫 彫刻과가튼空間藝術이며 演劇과가튼 時間藝術』이라고 讀揚舉하고잇스며 近日에는 文學 音樂 繪畫 彫刻 建築 演藝 舞蹈의다음에온 第八藝術이라는稱名을 映畫에부치며 다음 最近의發聲映畫는 一種第九藝術이라고도한다。

文化的方面에잇서서의 映畫의 價値도 이미判斷된 社會的定論이며 佛國의 루이、조ー레소는 다음과가튼말을 하엿다。

『萬若世界에印刷術이 發明되기前에 活動寫眞의發明이 몬저發明되엿다고 假定한다면은 아마 우리들은 印刷術의必要를 늣기지안하엿슬것이다。그것은 活動寫眞과가티 世界共通의言語는 업기문때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쓰려는要點은 이러한映畫의 藝術文化的方面보담 主로映畫에對한 企業的方面에잇스며 그것도 理論보담 實際의數字的硏究로써 朝鮮人의 映畫企業의利害와 그將來에對하야 簡單한考察을할가한다

그런데 이方面의 統計數字는 全部整理된것이업슬뿐더러 最近의것이稀少하며 더욱 各數字에 對하야서도 各人各自의것이되여잇서 그眞否如何를 判定할수업는境遇가만하엿다。이리하야 以下에引用한數字는 내가 適當히 參酌하야 取捨한것이적지안타。

一、世界及日本內地의 映畫企業의現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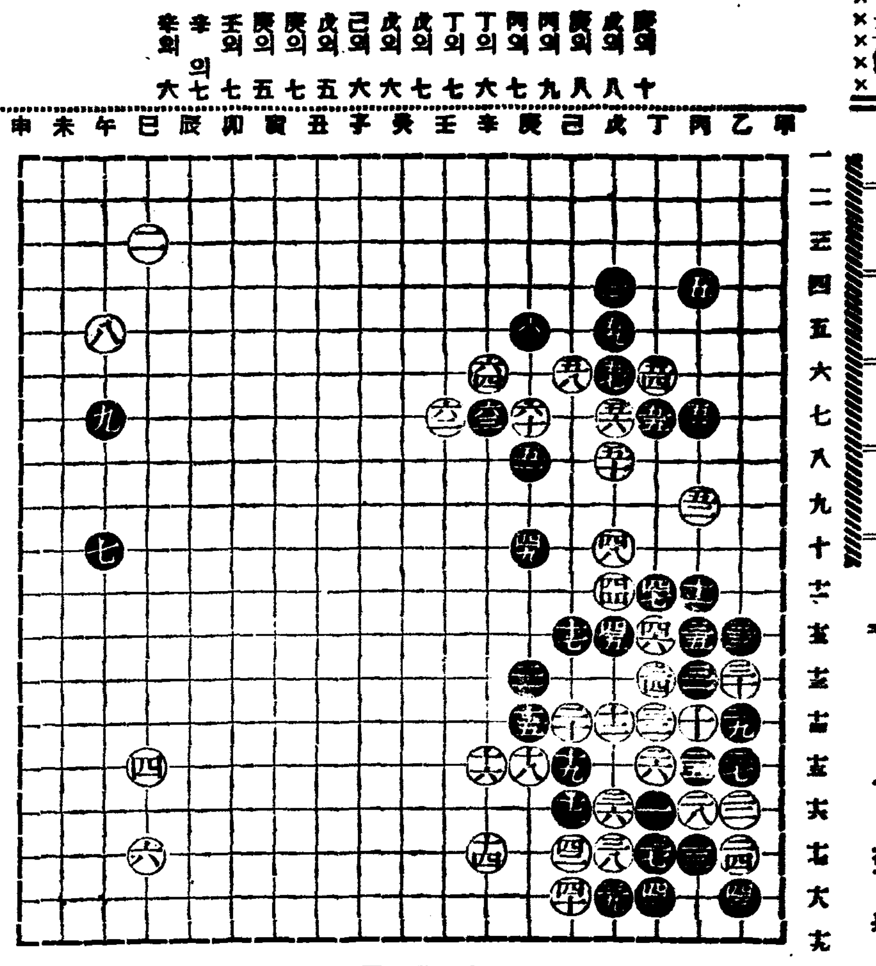
비단 映畫企業에서뿐만 아니라 所謂 興行事業은 初期에잇서 企業으로서 不安全한 要素가不少하엿스며 따라서 그發展途程에서 多大한受難期를經過하여왓다。過去그大部分은 極히零細한自己資本으로經營되엿고 一般投資家들은 興行의企業的價値를 極히危疑視하엿다。그러나 近來 興業에對한大衆的支持와 企業組織의發達에依하야 興行事業은 勿論 特히映畫의企業化도 劃期的發達을하엿다。

米國의映畫企業은 世界的으로 有名하며 이產業에投下되總資本額은 一九二九年에三十億弗에達하야 米國全產業의第三位를占하고잇스며 一九二八年부터一九二九年間에 發聲映畫에 새로히投資된額數만이 五億弗을 超過하엿다。그리고 同國의필림의製作高는 그全盛期에 一年間一億八千萬弗에達하엿스며 國務省產業調査局의 發表에依하면 昨年度의 스타디오數는 卅九、그製作費總計 九千七百七十四萬八千三百七十七弗 映畫從業員의總收入은 一千五百四十六萬九十一弗(生產費의約一割五分)이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4—

白 柳鎭河　黑先 丁奎春



●	[illegible]	庚의十
○	[illegible]	戊의八
●	[illegible]	庚의八
○	[illegible]	丙의九
●	[illegible]	丙의七
○	[illegible]	丁의六
●	[illegible]	丁의七
○	[illegible]	戊의七
●	[illegible]	戊의六
○	[illegible]	己의六
●	[illegible]	戊의五
○	[illegible]	庚의七
●	[illegible]	庚의五
○	[illegible]	壬의七
●	[illegible]	辛의七
○	[illegible]	辛의六

蔡極文氏評曰 白이 黑權威下自陣構成이 原是未洽하고 黑은 白이入境圖生하드래도 己의六으로 防禦策을 利用하야 禁制蔓延이 可커늘 戊의六으로 斷하야 自由放送은 養虎遺患이아닐가하노라

旱魃—其極에達해 年形於是乎大憂慮

白雲만오락가락 冷風까지連日繼續

秧苗枯死、麥作五割減收未免 간곳마다農民의한숨뿐

淳昌 과연 괴상맹랑한 병자변! 전북 순창지방에는 금춘이래 수개월동안 줄곳 계속되는 대한발로인하야 묘판은 말라붓고 전작물(田作物)의 고사와 을묘수까지 부족되는곳이 불소케되여 문자그대로의 한발소동을 일으키고잇는바 농가의 제이생명인 맥작까지 지난겨울의 지리한랭해에다 설상가상으로 한해까지 당하게되여 심한곳은 오할이상의 감수를 면치 못하리라하며 이앙기가 목전에 박두한이때에 비는 올가망조차업고 착공에는 희구름만 오락가락할뿐인데 때아닌 태풍까지 련일습래하여 간곳마다 농민대중의 장탄식뿐이라한다

은 루보한바어니와 아직까지도 비가 나리지 아니하여 저수지에도 수량이 태반부족되다하며 을묘수까지 고갈되곳이 만아서 실로 말이 못될 지경에 빠저잇는터에다 떠욱이 요사이 일긔로말하면 조석으로 찬바람만 불며 검은구름만떠돌고 비올가망은 보이지아니하므로 일반농가에서는 적지안흔 불안과공포심을 늣기고잇다고한다

안에싸이엿스며 륙십년전의병자변흉작이 금년에 다시 도라왓다는농민심은 극도로 불안에싸이엿다

麥穗와秧苗 모다枯死

公州 충남공주지방에는 지난달오일초순에약간의 비가 온후 월여동안 비한방울오지아니하야 보리싹은 발육서의한발이심하야 그냥말라죽고 논(畓)의묘자리판은 그냥 말라부터서 묘를옴겨심으지못하는데 구름만와다가다하고 비는 오지아니하야 일반농가에서는 넷날의 병자변흉변을 두려워하며 금번도병자년으로변사를 크게우려하야 인심은 불안상태에잇다한다

農作物은勿論 井水까지涸渇

牙山 충남 아산지방일대에는 십여일을계속되는 한발로 인하여 고사상태에잇는 전작물은 말할것도업고 이앙긔가 닥처왓슴도 불구하고 물이업서 이앙은 불가능한데다 묘판까지 고갈된다함

年麥凶作에伴하야 白米價逐日暴騰

農民과俸給者의恐慌

大田 대전지방에는 오래동안 비가나리지안허묘판이귀열되고 심한곳에는 을묘수까지 고갈하야 인심이흉흉한곳까지 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맥작(麥作)역시흉작을면치못하게되야 춘궁기에보리농사만 기다리고잇는농민들의 앞길은 참담하다 그리고 쌀(白米)갑시나날이 폭등하야 한말에 이원팔십전식하든것이 삼원으로 올으고 상원하든것이 일략삼원사십전이라는 근래에드무리만치 폭등하야 빈농(貧農)은 쌀밥구경 업슴은 말할것도업거니와 봉급자들역시 적지안흔타격을 밧는터이라고한다

米價日復暴騰 細民層大騷動

鴻山 충남부여읍내에는 비가오지안허서식수(食水)까지 고갈상태에잇다 또 맥작도수일내로 비가 나리지안흐면 흉년을면키어렵다는데 이로인하야 백미(白米)소일두에 일원이십전하든것이 칠팔십전이상폭등은 소화삼년이래 처음보는 폭등이라는바 이에반하야 봉급생활자와 세민들의생활에는 적지안흔 위협을준다고한다

數日內不雨면— 麥、稻作間다凶作

麥作은五割假量減收

羅州 초춘에는 너무 강우(降雨)가 빈번하엿고 근일에는 일개월이상 한발(旱魃)이 계속하여 묘판과 맥근이 전부고갈상태이며 압흐로 몃칠동안만더 한발이 계속되면 대흉년이면하리라는바 무심한천후(天候)는 계속하야 일점의강우가 업슬뿐아니라 묘맥은 아지음타작을 하는중이며외관으로는 잘되는듯하나 실상인즉 것말은이태반으로심한것은 반주도못된다는데 이제라주전군을통하여볼진대 이학내지사오할의감수는 확정적으로 맥작은 문자그대로의 대흉작일뿐아니라 일긔의하는모양이 당분간은 전연강우의 희망이 업는듯함으로 또다시 작년과가튼 한재를 면치못하리라하야 농촌의인심은 극도로 흉흉하야가는 중이라한다

祈雨祭擧行 面職員總動員

醴泉 경북례천지방에는 오래전부터 한발이계속하야 모맥(牟麥)은말할여지도업시 흉작이며 일반농작물도고사지경일뿐 아니라 음료수(飮料水)까지도 고갈 되엿슴으로 례천면당국에서는 향례(鄕例)에 의하여 삼일간소(牛)도 잡지못하게하고 기도를한후 지난십일오후 십일시에 흑응산록(黑應山麓)에서 면장이하직원일동이 긔우제를 거행하엿다한다

年形은失望狀態 飮料水까지涸渇

農村人心날로恟恟

天安 충남천안지방은 수개월래로 비가나리지안코 의연가믈이혹심하야 이앙긔에 이식은할수업슬것도업고 묘판까지 귀열되여 일반농가는 심히초조한 가운대 하늘만처다 볼뿐이오 더욱근일에와서는 정수까지 말러서 수도시설이 머버되시내에서는 음료수를엇기에 곤난한형편으로인바 가일층곤궁한중에 빠저잇다

人心去益不安 前丙子年을聯想

保寧 충남보령지방은 이래사십여일을두고 한발이계속하야 이앙긔가 느저감에도 이앙은 고사하고묘판(苗板)까지 고갈상태에 빠젓스며 설상가상으로 잘자라나든 맥작까지 요지음에와서 결실이 불량하야 흉작을난면이라하야 불

校舍擴張費問題로 場內波瀾激化

統營公普學父兄會經過

【統營】 통영공보교 제십오회학부형회 정과총회는 지난오월십일오후삼시에 동교강당에서 개최케되엿스나 회를 소집한 전회장이 출석하지안홈으로 하는수업시 림시의장제태언(諸泰彦)씨 개회사로 토의사항의 순서에도 들기전부터 이곳에서 전회장에대한 비난성이 자못장내의 공긔를 요란케하엿다 내용은 총회원일천륙백명의 학부형들과 또는 학부형회의 총지시긔관이라고할수잇는 평의원회를 멸시하고 자긔단독적행동을 한데서부터 발단되엿든것이다 겨우진정을시켜 본토의에 드러가게되바 토의사항중 신축교사랑하(廊下)공사비부담의건에드러가자 개회벽두의긔합이 재발되여 학부형측으로부터 금번신축교사랑하확장공사비 부담금으로 매명에 일원식내라는 통지서에 대하야 학부형회 또는 평의원회에 결의여하를 질문한측 의장역시 한등의견 교합이 업섯든것만큼 답변에 망서리고 잇자 장내의공긔는 더욱 험악하여젓다 원래보교교사가협소하여 일천륙백명아동을수용 하기가 불능함으로 교수하여오든중 군합무당국에서 량해한바가잇서서 이만륙천원을 긔채하야 금추부터 이십사학급교실을 신축케되엿는데 에 의하야 평가일을 신축교사랑하 넓이가 일간인바 그당시 회장이든 허긔엽(許基燁)씨는일간으로는 좁다하야 군당국에교섭하엿드니 일간외에는 긔정된 예산으로는 불능하니마업 학부형측에서 긔여하다면이라고하면 바간을 확장하는 때 이천원이 초과될터이니 학부형측으로 부터 연출한다면 일간반(一間半)으로 하여주마고 하엿다한다 이것을 전긔 허씨는 아무에게도 상의가엽시 독단적으로 인쇄물을발송하는등 학교당국에다 중수하여달라고 부탁하는등하야 현재 중수된 액수가 오백여원에 달한다하며 내지안는 학생에게는 매일가티 독촉을하엿다고하니현재 조선인생활상태를 빗추어반다시 배워야 될것임에도 불구하고 월사금을못내여 퇴학처분을밧는 사실이 비일비재이며또한 통영만하드래도 한때의끈이를먹지못하고 견식하며 통학하는학생이 상당이상이나되는 현상임에도 불고하고 견의도업는 랑하확장비 일원만내라고 독촉한것을위시하여 제이공보교의전제로 사립학술강습회문제가 대두되며 일반의감정을 더욱악화되여 장내의공긔가 일시매우험악하여엿스나 결국당사자인 허씨의출석이업섯슴으로 신임평의원에게 조사전말을 일임시켜 현학부형회에서 정식으로 인수의가부를 결정하자고가결되엿다 신임의원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會長—諸泰彦 總務—池弘圭 書記及會計—金學(?) 監事—淡生 徐丙斗 評議員—朴貞緖 金泰宇 金珉洙 金桐基 車相天 李鍾錫 朴致洙 朴來根 裴仕淡 李淸雨 金英勳 金南仟 鄭基淳 崔南欽 金章煥

當局立案에率先 擴張期成會組織

鎭南浦公職者大會를開催코 各要路에陳情決議

【鎭南浦】 진남포부상수도(上水道) 확장문제는 수년래 진남포부의 중대현안으로 되여오든중 금춘이래 수원지(水源池)의 고갈로 수차나 시간급수제를 실시하는등 오만부민의 생활상 막대한 위협을 주게되엿다 그뿐아니라 수도문제는 개인의위생상으로보나 부의발전상으로보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안흐면 안되리라고해서 부당국에서도 대동강(大同江)인수안을 세우고 전문긔사를 청하여실지조사중인데 총공사비가 약 엄백십칠만원을 요할것임으로 삼분지일 가량의 국고보조(國庫補助)를 밧지안흐면 도저히 실현키어려운 문제임으로 수도문제의 촉진운동을 일으키고저 공직자대회를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예정과가티 지난십이일오후세시부터 공회당에서 공직자대회를 개최하고 장시간토의한결과 진남포부 수도촉진긔성회(鎭南浦府水道促進期成會)를 조직한후 위선 총독부당국을 비롯하여 각요로에 결의문을 발송하고 만일의 경우에는 진정의원을 선정하여 총독부에 진정까지하는등 대대적으로 촉진운동의긔세를 올리기로만장일치 가결되엿다는바그결과가 자못주목되는바이며 각요로의 보낼결의문은다음과갓다고한다

決議文

當鎭南浦府水道施設은 最近에잇서서 長足으로進展되는府勢와는相伴치못하게 水量의涸渴은甚하여 五萬府民의 保健衛生은 屢次危機에 瀕하여其生活은 脅威를 當케되엿슴으로써 吾人은茲에期成會를 結成하고 恒久的施設을 要望하여 其의完成促進을期함

右決議함

人道上重大問題

例의滿洲國稅關吏 又復潛商에暴行

〃세파트〃를시켜咬傷後또亂刺 被害者들은生命危篤

【新義州】 지난달하순 안동세관감시선(安東稅關監視船)이 밀수선(密輸船)을 고의로 충돌시켜 한거번에 실사십일명을 강가운데 떠러처 그중 아홉명을 익사식인 사건에 대하야 방금 평북경찰부와 만주국간에 문제 거리가 되여잇는 이때에 또 만주국세관리의 비인간적취체로 중상자(重傷者)를 내이여 문제는 더욱 주목을끌고잇다 십일일 밤열시쯤 안동현륙도구(安東縣六道溝) 무한공사(無限公司) 구내 강안(江岸)에서 인조견(人造絹)을 밀수출하든

▲府內彌勒洞一七四 林天命(三一)

▲府外麻西洞番地未詳 崔景熙(三二)

외 오십여명은 만주국세관리수십명을맛나 세관리는 비난거리가 되여잇든 〃세파-트〃개를 불리여 전긔 두명을 중상식히고 아도 부족하야 다시 단도(短刀)로 머리와 『다리』를찔러 빈사상체에 이르게한후 버리고 도라간것을 동료들이 신의주로 운반하여다 부내대산병원에 입원 식이여 치료중인데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檢事는死刑求刑 判決에는無罪

◇…南海殺人强盜嫌疑事件 —檢事即日에控訴—

【晋州】 강도살인범남해군이동면무림리(南海郡二東面茂林里) 전석두(田碩斗)(二〇)에관한 공판은 지난번에 진주법원시청 하촌(下村)검사로부터 사형의구형이 잇섯든바 지난구일오전에 동법원지청이등(伊藤)재판장은 증거불충분이라하여 무죄판결을언도하엿는데 사건내용은 소화십년팔월삼십일일 오후칠시경 대보농림부남해출장소주임(大寶農林部南海出張所主任) 가등번조(加藤繁造)(四八)씨가 사무를 맛치고집으로돌아가는도중 무림리산고개에 도달하엿슬때 전긔전석두가돌연하야 큰돌로써 가등의 머리를 따려혼도시키고 다시 허리끈으로써 목을졸라죽인후 회중금시계한개와 현금사원을 탈취한혐의로 그작일에 경찰에 체포된 사실인데 검사는 불대 공소를 제긔하엿다한다

傳道區域是非 長老敎와監理敎

【載寧】 과반 장로교황해노회에서

今日 十四日

午前九時부터 醫專『코-트』에서

西朝鮮中等庭球大會

◇主催 平壤醫專庭球部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元山鐵道疑獄事件 十三名有罪決定

元山支廳에서豫審終結되여 咸興法院合議公判에

【元山】 소화구년 십이월에 원산서에서 현직 철도긔사(鐵道技師)와 철도지정 청부업자등십삼명을 검거하여 일시 세상의 물의를 이르키엇든 철도독직사건은 그동안 예심에 회부되여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 대서(大西)예심판사의 손에서 이변이란 장구한 세월을두고 심리를 밧든바 비로소 지난십이일에 예심이 종결되어 십삼명을 모다 함흥지방법원 합의부공판에 회부하엿다고한다

崇禮學堂設立 金氏努力으로

【谷山】 곡산군하도면 향천리(谷山郡下圖面香川里) 김운홍(金雲鴻)씨는 현재 그동리 구장으로 일백사십여호나 거주하는 그동리에 한낫 개량서당하나도업는것을 개탄히여여 지난정월부터동민을 총동원시켜 일백사오십평을 수용할만한 교사를 건축하고 방금 무산아동을 교육중인데 일반의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仁川體育會主催로 仁、富對抗弓術戰

六月十四五兩日間

【仁川】 조선재래의 체육운동으로자랑할만한 궁술(弓術)은날로 이그발전을 보이지안코 잇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잇든 인천체육회에서는 오는십사오량일간시내무덕정(武德亭)에서 본보인천지국후원하에 인천(仁川)과 부천(富川)군에서 각각 선수삼십명식 선발하야 인부대항 궁술전을 개최하리라한다

記者團基金으로 一金百圓寄附

【晋州】 진주긔자단(晋州記者團)

牛市場移轉問題 雙方讓步로解決

十日雙方이會合하야

【大田】 본보—대전부정이정목에 잇든 우시장(牛市場)을 영정삼정목으로 이전하겟다는것을 대전부회(大田府會)에서 결정하자 현시장편에서는 영정으로이전하면 수만명의사활문제라하야 절대반대하는일방 시장편부회의원과 상공회의원(商工會議員)등은 사표를제출하고 시장편에서 반대의 긔세가 충천을 하라만치 맹렬이일어나자 부당국에서도 그대책에 황당하든중 최선의 방책으로 우시장이전을 이개년간연긔한다는것을 결정하고 시장편 부회의원들에게 통고하얏스나 종시용하지안허 중대문제중에잇든바 도회의원 유지와 상공회의소 리사들의 중재로 마침내 원만타협이되야 지난십일 상방이회합하야 사표를 제출한 부회의원도 사표를 철회하기로 하엿다고한다

市區擴張斷行 宿望의多仁市場

【安溪】 경북의성군다인(多仁)시장에서는 일반농산의 단로(呑吐)로이 족일왕성하여 시장부지의 협소로 주민의불편이 미대하여 오든중 이에동감한 동면당국자와 동시에 거주하는 량마희(梁萬煥)씨외 수명의 열렬한 활동으로 시장확장비 총액 륙천칠백여원을던저 사업에착착 진행중이든바 오는십륙일을 긔하여 과념식도성대히 거행할예정이라고한다

愛慾의彼岸 【21】

李光洙 作 金康穆 畵

서울의 봄은 날로 새로워젓다. 진달레와 개나리와 버들 넘이 조선의 봄의 서곡이어니와 벗꼿이 만발하고 복숭아가 방싯방싯하기 시작할 때가 봄의절정이다.

오늘 아침에도 침모로 해서 김장로와 그알를 부인괴는 한바탕 언쟁이 잇섯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아침 일즉이 침모가 사랑에서 나오는것을보앗다는 놉아어멈의 보고에 의하야서 생긴 싸홈이엇다. 놉아어멈은 침모를 미워하엿다. 그것은 놉아어멈도 나이나 용모나 침모보다 지지안흔다고 자신하엿고, 또 제 말에 의하면 놉아어멈도 본래는 점잔흔집딸로서 침모보다도 지체가 못지아니한데 침모는 놉아어멈에게 대하여서 아씨 행세를 하려든다는것이 놉아어멈의 비위에맛지아니하엿다. 이 때문에 놉아어멈은 침모를 잡을 긔회만엿보고 잇는 판이오, 그러자니김장로부인의 편이되어서 일변김장로부인의 비위를 긁고 일변 침모에게 대한 잇는 일 업는 말을 고자질을 하엿다. 그러면 김장로부인은 그것을 다행으로 여겨서 놉아어멈에게 상급을 주엇다.

『잘 지켜 웅. 혹시 밤ㅅ중에 그년이 사랑에 들락날락 하지 안나 좀 지켜 보아요. 내가 어멈 공로를 다 할테니』

이러케 김장로부인은 놉아어멈에게 부탁하는것이엇다.

『그럼은요. 제 눈에 띄우기만 하면야』

하고 놉아어멈은 충성과 용긔를 보엿다.

그러터것이 오늘 아침에 놉아어멈이 김장로부인을 보고,

『마냄. 그년이 글세 사랑ㅅ중문으로 살랑살랑 나오겟지오. 아직도 채 밝지도안한는데. 암코양이모양으로 살랑살랑』

하고 일러바친것이엇다.

『저런 변이!』

하고 김장로부인은 부르르 떨엇다.

이 때문에 부인은 김장로를 불러들어서 심문을 바든것이엇다.

『어제ㅅ밤에 사랑에 누가 왓섯소?』

하는 부인의 신문에, 김장로는

『박이랑 와서 마장햇지』

하고 몰끄럼히 부인을 보앗다. 혜련은 숄그먼이 방에서 나가서 엿듯엇다.

『마장헌 다음에 말이오』

『마장헌 다음엔 오긴 누가와요?』

하고 김장로의 눈꾸리가 쪽 올라간다.

『오긴 누가 와? 그것을 당신이 모르고 내가 아우?』

『그, 원, 무슨 소리를 다 하는고?』

하고 김장로는 입맛을 다신다.

『다 알어, 다 알어. 새벽에 당신 방에서 살랑살랑 나온 년이 어느 년인지 내가 다 알엉. 흥 그런 법이 업습니다. 나는 다 죽은 년이니깐 당신이 아모러시기로 대수요 마는 자식들이 부끄럽지안소? 머리가 허연이가, 나이 륙십을 바라보는 이가, 게다가 교회에 장로가, 그게 무슨 행사란 말슴이오? 차라리 박선생모양으로 교직분도 다 내 노코 첩을 엇거나 기생오입을 해, 그게 도로혀 어엿허지. 그래 체면에집안에 둔하인을 친설로 불러들어서 그런 추행을 하신단 말슴이오? 아모리 급하시더라도 내가 죽기를 기다려서 장가를드시구료. 여학생 장가를 드시구려. 돈은 잇것다, 몸은 든든하것다, 무슨 걱정이오? 일생먹지도 안코 [illegible]시도 안코 돈한눈을 켜서 서라도 살아보랴고 애를 쓰드니 먹을만큼 되니깐 병이 들어서 그야말로 먹지도못하고 죽는 나만 불상하지. 그래도 하나님께서야 나를 나려다보시겟지. 하나님 나려봅시사』

하고 부인은 울기를 시작한다.

부인은 체면도 보아서 속에 북바치는분을 참고 아모조록 점잔케 말을 하라고 애를 쓰다가, 더 참을수가 업서서 울음이 터진것이엇다.

김장로는 알는 안해의 말을 들을 때에 동정이 되는것보다도 불쾌하엿다. 그뿐아니라 남편으로의, 가장으로의 위신을상한것 가타서 분개하엿다 그래서,

『그런 사특한 생각을하고 잇스니까 병이 나지. 낫지를 안치』

하고 뽐내엇다.

淋疾 합병증치료제

合併症治療劑

迅速히排膿을中止식히고濁尿를淸澄히疼痛을鎭定함

本劑는淋疾의治療上가장信賴할수잇는 外ㄱ진을 特殊(特許)의處理에依하야 毒素等의 副作用導原을除去하고그効成分만안지겐을 普通劑의數倍를一回에술수잇게研究하고 이에化學的治療劑인 要시울及오로사민等鎭痛、消炎、殺菌力잇는藥劑를配合하야 完成한것입니다따라서

急性淋疾에는 처음부터 慢性淋疾特히治療困難한 攝護腺炎、丸炎等에는特히有効하야 治療界에賞用되여잇습니다。

또婦人科領域에잇서서 手術外에治療法이업다는 喇叭管炎、子宮內膜炎에도奏効합니다。

本劑의一注射는 隔日로이를施行하야 慢性淋毒性疾患을治癒한 多數의治驗例가잇다。

注射 ネオカルゴノーゲ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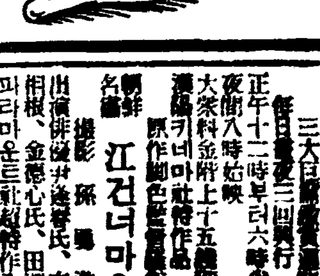
네오가루고노겐

管 五……cc〇二

管 十……

管 十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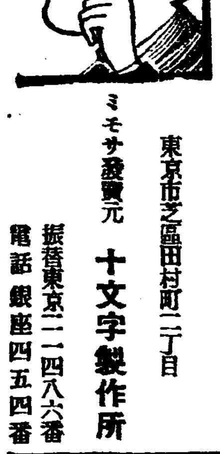
管 十五……



No.64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安全面刀宣傳普及廣告



面刀는安全便利한 安全面刀에限함!

面刀에安全面刀의 使用은아직도 一般的으로 普及되지안헛지만 安全하고 便利한安全面刀를 勸합니다 只今安全面刀普及으로 弊所發賣中인 ミモサ替刀十枚付普及型安全面刀器一組에 替刀利用의特許 ナイフ를 添付特價八十錢에提供함。이特價는 發賣元에서 特別提供品인바 全國의여러분은 이機會를 逸치말고 振替나小爲替로 八十錢만送金하면 前記特價品을急送함。又는代引으로도 付送함、但手數料十錢을要함。

東京市芝區田村町二丁目

ミモサ發賣元 十文字製作所

振替東京二一四八六番 電話銀座四五四番

六月十一日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日鮮名畵週間

每日晝夜二回興行 正午十二時부터六時半까지續映 夜間八時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

漢陽키네마社特作品 原作脚色監督

朝鮮名畵 江건너마을

撮影 孫勇進

出演 文藝峰、車相根、金德心氏、田澤二氏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레오·맥게리氏監督

我輩は鴨である

구루쵸·말그스氏하루보·말그스氏 시고·말그스氏제보·말그스氏四兄弟出演

東亞キネマ社作品無聲 根津新氏監督

淸代劇 彼の第二の葬 歌川るい子 嵐寬壽郞氏主演

여러분의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電光二一五番

斷然名畵史上에新記錄篇! 六月十四日부터超特別大封切!

MGM超特作發聲日本版 巨匠리차-드보레스라부스키大作

猛獸師의아들

巨星웰-래스비아리氏 天才작키쿠-파君 主演

流浪의旅! 名譽도地位도무엇도내子息을그리는마음압헤는아모效果가업섯다猛獸의怒號狂奔하는曲馬團의哀想悲壯의敍情과父性愛高唱의萬代不朽의名畵

유社超特作日本版 에드와-드루도익그氏大作

少年Gメン

후랑키-다로-君 비리-비랏도君 主演

童心大國! 이淳朴한곳에서世界一의富豪少女를中心으로짜내는광그의活躍과Gメン의猛襲逆襲을그려興味百%

大都映畵社特作現代劇 太田辰三監督作品

嫁とり日記

伴淳三郞久野あかね主演

眞鐵町 優美館 龍光三九五

六月十日封切

特別大興行 每日三回〔午前十時四〇分 午後一時半六時半〕

◆京城撮影所超特作映畵 李銘牛監督作品 朝鮮語全發聲日本版

洪吉童傳 續篇

李慶善、李錦龍、李鍾哲、羅雄、金寅圭 主演

◆朝鮮發聲界로서代表的傑作! 規模의壯大함을자랑하며技術上엄청난進境을보여준雄篇

◆伊太利A·C·! 超特作映畵 말타에겔트 산도로팔미에리 主演

面影

◆伊太利가나은優雅典麗한音樂藝術映畵! 三十五年度歐洲映畵藝術賞을바든靜寂한名篇!

◆佛國토비스社超特作映畵 G·W·파부스트監督作品

上에서下까지

토비스社의特製를網羅하야痛絶快絶한諷刺名喜劇이되다

—(次週封切)— 鄕愁、정글의王者

(乞期待)米國의機密室、메추로포리탄、나는거리의재울거리、오메라헷、뮤직교라운드、멜플의愛國者

映畵殿堂 朝鮮第一 團成社

六月十六日부터晝夜 東劇座公演

其間各地에서絶讚의喝采을밧고도라온東劇座는巡業의길을미치고오날부터다음의名藝題와括目할演技로여러분을맛게되엿습니다

林仙手作 時代劇『松竹莊의武夫』二幕

華麗하고壯嚴한이時代劇이야말로東劇座가아니고는볼수업는大傑作品! 百濟末葉의史蹟에서取材한것으로丈夫의義氣를알나거든이劇을보라

出演 卞基鐘、李敬煥、宋海天、河芝瀛、崔仙、金英淑 其他東劇座올스타-캐스트

金振門作 人情劇『魔都의天使』一幕

人間은누구나魔都에살고잇다 人間은누구나魔手에걸녀잇다그러나그대의가장갓가운곳에天使가잇는줄을왜몰낫든고보라人情味가득한이한幕을! 그리고깨다름이잇스라

出演 朴昌煥、韓一松、朴英泰、金道日、李瀾玉、金陽春 其他

洛山人作 喜劇『來日은五百圓만』一幕

우슴속에서人間의알미운흉을그린愛絶한喜劇

西大門町 電光3·二三番 東洋劇場

"米穀統制目標" 專賣制로落着? (下)

申泰翊

끄므로 以上에對한 結論을 平가지斷에 나와서 말하라고 한다 即 첫재로 米穀自治管理法이 發動케된境遇에 朝鮮經濟로서 어떠한 影響을 밧게될가 둘재로는 米穀自治管理法에서 한거름을 나아가 果然 그事實에 어느게되면 그때는 朝鮮米에 어떠한結果를 매질것인가 함을 檢討할必要가 잇다

◆첫재의境遇를 생각하여 보자 米穀自治管理法의 目標가 表面上으로는 米過剩對策 即 米價暴落의 作用을 人爲的으로 發揮치못하도록 豫備的工作을 하라는곳에잇다 그러나 裡面的事情은 日本內地의 朝鮮米移入量이 激增되야 日本內地米價를 崩落케하므로 그 數量을 막고 相當한 價位에 잇게함에는 아모려케해도 朝鮮米의 移入을 어느程度以上 制限하라는것을 그 主眼點으로 삼은것이 疑心업는 事實이다。

×

그러므로 米穀自治管理法이 發動되야 日本內地、朝鮮、臺灣의 세곳이 一齊히 過剩米數量을 配定比例에依하야 所謂自治管理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公平한立場에서 되는것이아니라 朝鮮米移出의制限을 하기爲하야 一種의 辯明的細節을 한것에不過함을 밝히 알수 잇게된다 따라서 그 自治管理의 結果如何는 朝鮮米에 거의局限된것으로 볼수밧게 업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米穀自治管理法發動의 結果가 朝鮮米로 낫브다고 함은 곳 朝鮮米로서밧는 影響이 되고만다 그러면 米穀自治管理法의 發動의結果를 어떠케볼가 함에잇서는 大體로 朝鮮米에對하야 조흔結果가 못될것은 勿論 큰 打擊이 밋칠것을 豫想케된다 왜 그러냐고 하면 朝鮮米移出은 從來와 가티 얼만한 數量이 自由를 일케되고 어느時期까지 農村經濟의 換金行動이 그마한 不圓滑性을 띄게될것은 勿論 그結果 米移出量은 減退로 한 朝鮮經濟의特殊的本質로하여금 破綻을 보게할不安性이 多分으로 잇다

×

그러고 米穀自治管理法은 米穀統制法으로因한 政府의財政的負擔을 轉嫁한것이므로 이法이發動되면 이때에는 朝鮮內의地主、農民에게 새로히 또過重한 負擔이 加케되는結果에 이를것이다 이와가티 米穀自治管理法의發動으로因하야 朝鮮經濟는 移出米制限이란 自由技能의 喪失과 새로운負擔加重의結果를 오게함에 잇서足히 重壓할수가잇다 그러나 이것은 全般的에 直接影響을 다시 部分的으로 밋치는影響을 생각한다면 各自立場에 따라서 그利害가 相反되는點도 업지안흘가 한다 即

(一)地主=自治管理로 打擊을 바들사람으로 먼저 地主라고 할것이다 이것은 왜-그러냐 고하면 朝鮮米移出의大部分은 小作料로바든地主의쌀이 占하고잇는만큼 그移出이 어느程度까지 自由를 일케된다는것은 곳 地主의手中에 잇는쌀이 가장 만히 自治管理케된다는것은 當然한結果이다 그러므로 이點에잇서 地主는 顯著히 不利케될것으로 볼것이다 그런데 一面으로 自治管理는 米價高維持에 잇슴으로 적어도 最低公定價以上의 米價를 保持케 될것이므로 지금까지米價暴落의恐怖가 除去되고 따라서 地主는 그마한 安心의利益이 잇게되는 點이잇다 그뿐만아니라 假渡金의 低資融通을 밧게되는點에잇서 自治管理로 因한不利가 얼마쯤 相殺케 되지안흘가 하는생각을 갓게한다。

×

(二)農民=이미 말한바와가티 地主의손을 떠나서 移出되는쌀은 그量이 만치못하지만 實際에 農家로서 돈을장만함에는 그價値가 相當히 大하다 그러고 이들은 自治管理에 依한假渡金融資를 밧는것으로써 當然히 잇슬수업는만큼 實에잇서 害이만흔地主以上의 큰打擊을맛게되지안흘가念慮한다 또는 米穀統制組合費其他로 그들의 負擔은 過重의 結果가 생길것만은 明若觀火이다

(三)商人=米價動搖의 幅을 縮少한米穀統制法實施以來 米穀取引所를 비롯하야 米穀商의技能이 奪거되어왓다 더구나 米穀自治管理法에 잇서는 米穀商의技能을 거의全的으로 抹殺하라는 點이잇고 또는 米取의 全國的一個所에 限케되다는말이 잇슴으로 米取와 米穀商에 잇서는 大受難期에 直面한것이 事實이다。

×

다음에는 將次 米專賣가 實現된다고 하면、朝鮮米에 어떠한影響이 잇슬가 함에잇서서는 아즉 그全貌를 모르는만큼 이에對하야 어떠튼지 定見을 말할수 업스나 지금까지 거래온 米穀統制의 目標가 무엇보다 朝鮮米移入制止에 잇는만큼 專賣制가 된다면 이點을 두게될것이다 그러므로 그實은 專賣制라는 獨占的制度압에서 朝鮮米移入에對하야 一層強力의制限을 손쉽게할수잇는 때 이르지 안흘가 하는생각을 갓는바이다。

——(終)——

生糸價暴騰으로 繭價再協定提議

製糸協會側은緊急會를開催 農林局은觀望態度

지난五日 決定한 繭共同販賣價協定時는 橫濱生絲市勢가 六百圓臺이어서 掛目으로는 二十五掛이엇스나 그後 生絲價는連日暴騰하야 一週間後인 昨十二日에는 先、當限平均市勢가 七百二十五圓五十錢에까지 이르러 掛目으로는 三十掛半으로 되엿다 여기에問題되는것은 前日掛目協定時는 生絲의 最高價를七百四十圓에서 七百二十圓까지를二十九掛로 定하엿슨것이고 그以上의 高市勢에 對하여서는 何等의 協定이업섯슴으로 十二日의 生絲價七百二十五圓五十錢이라는市勢에 對하여서 掛目協定外의 市勢임으로 어떠케 處理하여야할것이냐 하는疑問이 생기어 全北道에서는 農林局에 問議하여온바잇서 農林局에서는 當局어떠케할수업서서 前日協定掛目에準하여 三十掛半으로 取引할것으로 指示하여 今十三日은 三十掛半으로 取引되고잇스나 製絲協會로서는 그대로 應할수업다고하여 絲價七百二十圓을 超過할時의 繭價에對하야 再協定의必要가잇다하여 製絲協會에서는十三日午後五時부터幹部會를召集케되엿다 總督府로서는 絲價가 七百二十圓 乃至 四十圓까지 가지 못하리라는

觀測

下에 協定의 必要가 업스리라고 보고잇다 協會側에서 再協定의 必要가 잇다는 理由는 只今 商價로 買入하엿다가 數朔後에 下落한다면 큰 損이 잇스리라는 前提下에 絲價가 더 놉하진다해도 掛目을 좀 적게 놉히자는것이어서 今後 絲價의 變動과 掛目의 再協定如何는 蠶繭에게 크게 關係되는바로 注目되는바이다。

春蠶第三回豫想

收繭一分三厘減?

六月十日現在의 本期春蠶은 各道가 모다 蠶兒의發育良好하고 桑葉은 京畿道、忠淸南道、平安南道、平安北道가 多少 不足한外의 他道는 過不足이 업슬모양이다 收繭豫想額은 一千四百五十萬六千二百二瓩(四十五萬五千九十七石)이고 이를 前年春蠶收繭額實數 一千四百六十九萬六千九百十八瓩(四十六萬一千八十七石)에比하면 十九萬七百十六瓩(五千九百八十三石)即 一分三厘의 減少이다 地方別로보면 增加한것은 全羅北道의 一割五分五厘를 最高로 全羅南道의 九分八厘 咸鏡北道의 八分五厘 咸鏡南道의 四分九厘、慶尙北道의 二分九厘、慶尙南道의 一分九厘로서 其他七道는모다減少하야 江原道의一割五分二厘가 最甚하며 平安北道의 一割三厘、忠淸北道의 八分二厘、平安南道의五分 京畿道의 四分二厘 黃海道의 一分四厘가 다음가는데 最低는忠淸南道의一厘이다 道別로 詳細한것을보면 次表와 갓다

道名	蠶兒發育狀況	收繭豫想額 瓩	比前年實收增減(▲減) 數量 瓩	割合 割
京畿	良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佳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良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良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良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重統는反對 根據업다

有賀殖銀頭取談

特別議會出席으로 渡東中이든 有賀殖銀頭取는 十三日 午前七時四十五分着 歸京한바 다음과가티말하엿다 殖産債券은 이번 二千萬圓을 四分一厘파-로 一流債의 先驅를하엿는데 今後四分파-發行이 實現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公債의 三分五厘가 當分間不動하면 먼저 이近處가 바다일것인데 當行의 債券은 五分臺의것이 多少 남어잇고 四分五厘의것도 아즉 남어잇스나 金融情勢如何로漸次 借換하라고 생각한다 어떠튼지 起債市場은 目下形勢觀望이 만히 待機中인데 殖銀債가 安定點을 보힌것이 動機로 下半期가되면 借換新規發行等으로 相當히 活況을呈할것이다

×

重要産業統制法의 朝鮮適用으로매우 騷動하는 模樣이나 朝鮮으로서 大局的 經濟統制에 參加함에 何等反對할 根據가업다 朝鮮의 特殊事情을 그實行에잇서 參酌하여주면 相關업다

×

米穀管理法案도 朝鮮이 大讓步한것가티생각하나 이統制에參加하면朝鮮을 爲하야 有利하다 만약어되까지 朝鮮이 이에 反對하면 日本內地의壓迫이 얼마큼 加重케될는지 모른다

×

當行의理事補充에對하야는 大藏省과協議하엿스나 아즉人選은 決定되지안헛다 어떠튼八月定期總會까지 決定될것으로 생각한다 京春鐵道는 京城을基點으로한最初의私鐵이라고함에 意義가잇고 春川은 勿論 京城을 爲하야도 큰寄與가잇슬것이다

肥料運賃 朝鮮은高率

肥料의鐵道運賃은 硫安、硝石、化成肥料等은 一般動植物肥料에比하야 等級을 相異히하야 割高이오 日本內地서는 此等은 大體一律取扱인데 朝鮮에서는 兩地를 對照하면 硫安運賃과 如히顯著히 割高를示코잇다 輸送이만흔것은 二百킬로程度의 輸送인데 이輸送에는特別한 恩惠가적지안흠으로 日本內地에서 同距離輸送에比하면 硫安은 運賃이倍額이나된다 肥料割高로 農林局에서는 近間 鐵道局과 交涉키로되엇다

豆粕運賃割引

鐵道局에서는 從來 南浦揚 豆粕에 就하야서는 例外的으로 運賃割戻를 行치안핫스나 今年부터 南浦揚에도 安東經由 局線活用上 割戻를 行케로 內定하얏다 이結果 從前 西朝鮮은 安東及奧地豆粕의 獨舞臺이엇스나 大連豆粕의 朝鮮內流入을 招致하게 되리라하야 注目되다한다

昨年中의 石炭消費

三百七十萬噸

朝鮮內의 事業勃興에 伴하야石炭消費는 一兩年來 飛躍的激增을 示하야 昭和六年當時의 總消費量百四十五萬噸은 十年度에는 二百七十萬三千噸으로 五個年間에八割의 激增이엇다 即累年消費高는

昭和六年	一、四五〇、八九七噸
同 七年	一、五五二、六〇六
同 八年	一、九〇七、九四八
同 九年	二、三一七、〇一〇
同 十年	二、七〇三、六一三

으로 十一年度의 消費高는 更히約五十萬噸增加가 豫想되어總消費는三百萬噸을突破할모양이다 十年의 消費內譯은 朝鮮炭百三十四萬一千九十六噸 日本內地炭七十四萬七千八百十九噸 滿洲炭六十一萬四千六百九十七噸인데日本內地의 石炭消費는 朝鮮보다 以上激增하야 昭和六年의 二千四百萬噸은 十年에는三千六百萬噸으로되고 日本內地炭의 供給은 어떤程度의 逼塞難免으로朝鮮內에도 石炭飢饉現出이 憂慮된다한다

最近朝鮮內農村 雜工業進出狀態

低勞銀、過剩勞力目標

最近 朝鮮內農村의 低勞銀 過剩勞力을 目標로 所謂雜工業、家內工業의 朝鮮農村進出이 接踵하는 傾向이다 卽 從前 厘子級와가튼것이 慶北等에서 行하얏는데 最近에 至하야 다시 雜工業으로 紙과나마幅製造、絹紗久留米絣製織을 비롯하야 諸家內工業이 朝鮮農村의 低廉한 勞力에 着眼하고 問屋側으로부터 原料와 機械等을 農民에 配給하고 製造케하는傾向을 生하얏고 洋襪、筆甲雜貨、玩具等도 生産되는 傾向이다 總督府에서는農村工業化와 自力更生의 見地로 此等雜工業에 相當한期待를 托코잇는 一面 問屋、元受者의搾取에 警戒코잇다한다

東拓管內移秧遲延

東拓支社管內社有地의 十日現在 植付狀況은 各支店報告를 綜合하면 總面積에 對한 植付率은 平均五分에 達치안코 昨年同期의 進捗率一割七分一厘에 比하야 顯著히 遲延되엇다 目下各地共히 植付用水의 不足을 告하고잇서 一週間內에 相當한 降雨가업슬時는 順調한植付는 去益困難이리라한다

繭資金利不變

三井物産融資開始

三井物産京城支店에서는 關係製絲工場에對한 春繭資金融通을開始하얏는데 金利는 前年同様平均一錢五厘로 金額은 夏秋繭을 合하야 最高三百萬圓이오 前年에比하야 五割의 增加로될모양이라한다

春繭出廻 全北開始

品質이良好

春繭은 十二、三日頃부터 全北裡里地方에서 出廻되는中인데 繭價는 絲價의昂騰에依하야 三圓九十錢의 市勢를付하야 養蠶家들은 歡喜하고잇다

朝鮮內春繭取引市勢 (農林局發表)

月日	場所	種別	最高	最低	買取	掛目	數量
六、一〇	慶北 尙州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一〇	慶南 晋州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一一	慶北 尙州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慶南 晋州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倉庫貨物出入

五月中京城狀況

【京城手形交換所調査】五月中의 京城府內 倉庫貨物出入 狀況은 (以下單位圓)

	個數	金額
今月入庫	[illegible]	[illegible]
今月出庫	[illegible]	[illegible]
月末現在	[illegible]	[illegible]

前月末에 比하야 個數는 一萬三百四個 金額은 六萬五千六百八十七圓의各減少이다

仁川期米先限 公定高價突破

天井不知의勢로暴騰되는 米價는 仁川淸算取引 八月限(先限)을 換算的으로計算하야 三十二圓六十五錢이最高公定米價에該當하려인데 十三日後場寄付에 三十二圓七十錢으로畢竟最高公定價(換算價)를 突破하얏다。 大阪先限은 三十五圓十二錢이 最高公定價인데 後寄三十四圓五十九錢으로 五十三丁이남엇고 東京先限은三十五圓四十二錢이 最高公定價인데 前止(後場例休)는三十四圓六十四錢으로 七十八丁이남엇다。

"中國通貨制度" ④ 過去十個年間變遷

一九三三年二月 中國內債의 徹底的整理가 된것은 特記치 안흘수가 업다 從來의內債는 모두 短期또 高利이엇스나 二月一日로서 全內債의借換이 되고 利率은 一律六分으로 또 期限은 各各從來의것에 二倍로 延長되엇다 그러고 公債는 모두 海關收入을 擔保로 하게되엇다 年末에는 政府와 減債基金委員會間에 協定되야 委員會는 公債元利拂을 하기爲하야 年年八百六十萬弗을 受取키로되고 同時에 現存公債의整理가 進捗되야 起債가 어느程度까지 容易케되도록 新規公債發行을 中止키로 決定하엿다。

×

世界的恐慌의波紋은 一九三二年下半에 中國에도 襲來하엿스나 그 情勢는 一九三三年에 一層顯著케되엇다 이때 中國의苦惱는 內亂과 楊子江의 氾濫에 依하야 加重되엇다 三月十日立法院에 通貨單位로 새로히 銀弗을 採用하는法律을 可決한것은 中國通貨制度上 매우 重要視할것이다 新弗은 重量二六‧六九七瓦으로 되엇다 即純銀八八%、銅一二%으로 되고 純銀含有量은 二三‧四九三四四瓦이며 四月五日에는 中央政治會議에서 廢兩을 決定하엿다 그러고 五月二十一日以後 輸入稅가 實施되엇다。

×

一九三三年의 世界銀塊市場은 一轉하야 上向步調로되엇다 그主因은 三月米國이 畢竟金本位를 離脫하고 그에伴하야 金에 代身으로 銀의使用이 늘것이라는希望에 基하야 即銀市勢는 年初를 最低價로 한그뒤 漸騰하고 金輸出禁止의米國大統令發布를 보고 急騰하엿다 六月에 一部의 나라는 請期戰債의 支拂을 銀으로서 行하고 英國도 華盛頓에 向하야 二千萬오스銀을 보내다 一九三三年度의 世界新産銀生産高는 一億六千[illegible] 其他쏘베트聯邦이 四千五百萬 印度가 五千萬오스를 賣却하엿다。

×

一九三三年여름 倫敦에 열닌 世界經濟會議는 아무가 업다 그會議의 主要目標이든 通貨安定은 畢竟失敗에 도라갓스나 銀委員會는 相當한成果를 보앗다 即 七月廿日에 는將來銀貨의改惡 或은溶潰를 안하고 또銀에對한致命的立法을 實施치안는다는 米國代表의 提案을 六十六個國政府의 代表者가 受諾하엿다。

―(續)―

今日財界 (十三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 大阪期米 先限 / 東京期米 先限 / 正租(仁川)一等 / 一斤價三等 [illegible]

◆金 [illegible]

◆株 朝取 / 東新 / 日産 [illegible]

◆商品 大阪綿糸 / 大阪人絹 / 大阪砂糖 / 大豆 / 日本麥粉 / ゴム F.A.Q. 現 [illegible]

經濟界消息

○電力使用許可制=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六月二十三日로부터 二十五日까지 三日間 同所에서 京城電氣株式會社及上原技師를 請하야 電氣動力使用에 關한 講習會를 열터이라고

○京春鐵道公債數=京春鐵道의 公募株三萬株申込은 十二日마감하얏는데 申込數는 十三日正午까지에 判明된 殖銀本店取扱 十四萬二千九百五十株 同支店取扱二萬三千株 合計十六萬五千九百五十株로 約五倍半에相當하다 또株의 配定方針은小口를 優待할터인데 十七日頃配定을決定하고 十八日頃通知를 發하리라고

○鐘紡京城工場上棟式擧行=鐘紡의京城工場은昨年八月以來 多田工務店請負로工事進行中이든바 六月十五日 午後四時부터上棟式을擧行할터이라고

○朝鮮 産業金融을 支配하고 잇는 有賀殖銀頭取 産業統制法도 贊成 米穀自治管理法도 贊成 一元化도 贊成

○特殊事情을 내세우고 떠드는 企業家諸君 注意!

○殖銀頭取가 보는 米穀自治管理는 朝鮮農民의 處地로 보는것과는 勿論 달을것이지…

東新의强氣論

九日에至하는間의 東新의依從步調는 注目되어잇섯스나 內外環境의 重壓에 大崩落아니라 東新은 上市勢가 업스리라는 觀測처럼 上進할것이면 市勢가 다시伸力이 挫折되고 擡頭의 逆日步觀法도 何等奏功할이 아니 市勢는 腕弱味가 잇는채 今週를 치고말엇다

買方悲觀、北中情勢惡化等 悲觀材料가 잇기는하나 低金利의强味에는 不及할것으로 結局 循環買는 金利水準까지 漸次買上될것이 아닌가? 東新에는 아즉 戒嚴令이 解除되지 안흔것은 增稅不明等으로 一抹의 不安이 잇는모양이나 雜株의 循環買에는 東新에도 人氣가 移케될것이나 雜株는거의事件前의 位置에 返하얏는데 東新만 低位에잇슬까닭이 무어인가? 增稅도 財界景氣의增大를招치안흘것이라는 어느 強氣論者의 說。云云

鐘新의買餘地?

百六十圓內外의鐘新은 百五十七、八圓臺를底値인바 東京、大阪市場에서는 二十五圓全額拂込으로보고잇서 相當한買餘地가잇는 一面 十二圓五十錢程度의 拂込이라면 百六十圓이 가싯것이라는말도잇서 拂込市勢는 나온것이라고도보고 잇다한다

株式 低調裡에 鈍重

商況 【十二日】

前場軟調 休日을압둔 半日立會는 積極買氣不昂하고 突込도警戒하야 低調裡鈍狀이엇스니 即昨後引에比하야 東新五十錢低인百三十四圓十錢、日産四十錢低인七十一圓七十錢、日産新二十錢低인二十一圓八十錢、日魯七十二圓五十錢、大新不變인七十三圓六十錢、鐘新十錢低인百五十八圓三十錢、朝新二十七圓丁에 各大引되고 拓新二十二圓丁이엇섯다 後場은例休이다

▲鐘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大同電力新 [illegible] ▲大同産業 [illegible] ▲日滿아루미 [illegible] ▲富士木材 [illegible] ▲東京製綱新 [illegible] ▲朝日麥業 [illegible] ▲電化學新 [illegible] ▲帝麻 [illegible] ▲滿洲煙草 [illegible] ▲片倉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公債는 孕하야 모다少强商狀을不示하고 買氣를 히米貨債는 品薄關係로 騰勢를 助長하야 六分半三十錢 五分半 六十錢高를告하고 佛貨도二十錢으로 引締되엇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二三 ▲第三五分利 一〇一、一五 ▲一回四分利 一〇二、五五 ▲二回四分利 一〇二、五五 ▲佛貨四分利 一九八、一五 ▲米貨四分利 三九三、七〇

東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米 康益夏商店 仁川 株 金益證券 京城

期米 最高價를 突破

前場伸悩 昨後場阪地三十四圓五十一錢止와共히 三十二圓六十一錢에 場한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四圓四十八錢인三丁反落을擲하고 三十二圓六十二錢인 反히 一丁高로場을始한後 阪地二節四十六錢으로 五十六錢까지 反騰止場하엿슴에 도利喰父는 運轉賣로六十二錢을 最高로五十四錢까지 下押하엿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市場六感

株……東新은上도 上旬大入線으로 伸力이 挫折되고서 支지부지▲또軟弱顯落이나 實勢들이가는 時時로 路上한것이 前例▲第一滋後는 新規買進力이 엄시다시軟化▲强해보다 氣采가 漸이다가는 雜株에걸리어 踏上反發▲이렇게저렇게新이 主動力이되어 市況을活潑케할商勢를期待함을 바라는便이잘못▲百四十二、五圓이먼저나오느냐 百二十五、七圓이먼저 나오느냐가問題가아니라 强한듯弱한 곳 고대로보합지나안흘지가 걱정▲明治村株式街는 한동소리와 取引店主타령소리가 나기시작

米……近日天候는依然旱氣를 繼續하야 昨日도 晴天 今日도晴天 三千里江土가 赤土化하다면 晴天白日인들 엇지無色치안으랴 ▲至誠이면 感天이니 指爪斷髮、三日齋戒後伏野千里한복판에 致誠까지 올모우고 祈雨祭나 지내볼까、此는 悲歎에빠진農家의 長太息이잇다 ▲今朝仁川觀測所의發表한바에依하면 아즉도好雨를 豫來할可望이업다 明日은 또 何如할모양인구 氣壓配置나注目하여보는수밧게 祈雨祭보다

當地商情一變

割高의關係?

後場強騰 後場은 三十二圓七十錢에 十丁寄로 保合하야 最高公定價(換算)에 上三十二圓六十五錢을 突破코 七十錢에 止하다

昨後場의 阪地三十四圓五十一錢止와 當地三十二圓六十一錢의止價로보면 阪仁의鞘가 百九十丁으로縮少되엿다 實로天災騰인만치 百五十丁程度의 縮鞘를示할수도잇스나 그러나金太를中心으로한 某二派側의 逆鞘賣物이現出하자 當地商情은依然一變하야 阪地依然三十四圓五十錢臺의 高價를示할에도 買하면 即仕手의關係로 또는 朝鮮은 用水不足으로 植付不能의 狀態에잇슴으로 아무리絶對勢力을가진 賣方이라 할지라도 大勢의 逆行은 하지못할것이다 金太와如한 賣方 主力側은 實米를 抱擁하고잇는만큼 大實物을 占할수잇스나 그러나 定期가올으면 實米의 市勢도그만큼 올으게됨으로 同店의 實物은 그다지 憂慮할것이업다고 某派는 主唱한다 그러나 阪仁의鞘가 百九十丁이나 縮少한만큼 此點에서 仕手의行動如何에依하야 多少波瀾할 餘地는 잇슬것갓다

商勢幾分躊躇

途中의呼吸?

米界의事情으로본다지 又는頭上天候의 繼續旱魃로보면 阪地三十四圓五十錢臺의 高價와 當地三十二圓五、六十錢臺의 高價도 오히려 不足의 感이업지아니하나 그러나 低價에서 約四百丁이나 續騰하얏슴이 아니라 九年以來의 新高價를 演出한 此際임으로 買方으로서 警戒를要하는것도 理勢의 自然이라할수잇스나 그러나 此에서 瓦落을許할만한 材料도업슴으로 商勢는 幾分躊躇할뿐으로 一時的途中呼吸이아닐가한다 有古米의 拂下는 米價가 昂騰할사록 더욱實現키 難할것이므로 더 更히 期待할 餘地가 업고 다만 材料로 注目할만한 點은 天候一本의 如何이다 設或 降雨가잇다할지라도 아즉 移秧도 完了하지못한 今日이라도 한 今後의 天氣가 何如할지몰음으로 低落後에는 밧듯이 그以上의高價를 演出하고야말것갓다 果如何?

堂島期米頑强

【大阪電話同盟】高價警戒는後場의今期도 買方의 利喰을買하야 勢一息인듯하얏스나 入梅後의晴天繼續으로 米價에는 어미殿落가잇고 正米高에 起因한것이로 利喰賣物이 無難消化되고 新高價를 示하야 買進하얏다

各地正米

京城强調 旱天繼續과 淸算高에 刺戟되어 드디여高唱이 丸仁三等卅一圓九十錢 四等卅一圓六十錢 一等白米卅三圓丁

仁川昂騰 麥不作과旱魃念慮로 去益深刻化로 人氣漸高를 不敗하고 更히十錢高의昂騰인 丸仁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六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錢

群山躍進 旱天繼續으로植付不安이 去益濃化하는中이다 角ㇴ三等三十一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三圓〇五錢

大邱强調 高價買警戒이오 賣行은不振이나 梅雨含과 期米高에刺戟되어 氣配十錢强調含인 三十二圓五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二錢

釜山續進 産地의態度가 去益强硬으로轉하고 期米의新高價에 押上된 一圓七十錢 四等三十一圓四十錢

木浦一息 昨日四十錢暴騰의 反動으로 値頃感으로 買躊躇가 濃厚하고 商狀一息氣味인 丸木三等卅二圓丁 四等卅一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市况 十二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純金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綱布◆ ◆滿油冲價◆ ◆綿粕冲價◆ ◆카코期米◆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朝取期米賣買高◆ ◆朝取期米◆ ◆朝取短期◆ ◆算定代引日步◆ ◆東京短期◆ ◆東京現株◆ ◆朝取短期賣買高◆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短期氣配◆ ◆大阪長期◆ ◆東京短期取組◆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 ◆大阪正米標準◆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大阪期米◆ ◆朝鮮內各地期米◆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illegible]